

# 성도의 벗

성도의 벗 4월호 1990년 4월 1일 발행 통권 28호 1990년 2월 24일 제 3종 우편물(단)인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무구 청운동 7번지 110-030



4

1990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 성도의 빛

1990년 4월호



## 일 반

2

대관장단 메시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9

“#1. 댄에게 잘 할 것”  
바바라 위크맨

10

이탈리아의 성도들  
돈 엘 씨얼

19

제가 전기 작가라구요?  
제네트 제르만

28

주님의 군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34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마빈 케이 가드너

43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의 생애

## 청소년란

22

미안해요, 베르다  
셰론 에스 기브

25

브라질의 축제  
잔 핀보로

32

나의 짐은 가벼워졌어요  
호스트 샤프스

## 정기 특별 기사

1

애독자 편지

7

물론 메시지

8

방문 교육 메시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 어린이란

50

요술 정원  
그레그 라슨

54

노래  
주 예수를 닮으려고  
제니스 캣 페리

56

지도자의 말씀

58

함께 나누는 시간  
속 죄  
로럴 롤핑

60

심심풀이  
예수님의 친구들  
디 에이 스토운

숨은 나비  
콜린 파히

61

물문경 이야기  
광야 여행

62

구세주의 친구가 됩시다  
로버트 이 웰즈 장로

예언자의 말씀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는 나에게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그 책에는 대관장님과 기타 총관리 역원의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나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에스라 태프트 밴슨 대관장님의 "교회의 청녀들에게"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 말씀이 주님께서 그의 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명백하고 참된 말씀입니다. 그 원리는 영원한 것이며,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도록 목표를 세우게 해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모두 성취될 것임을 아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리아호나를 읽으면 온 세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알게 되며 그들의 경험과 간증을 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처럼 많은 나라에 전파되었으며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구세주의 메시지를 즐겨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며 그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 퀸테로스 이노스트로사

칠레 센티아고 라스 콘데스 스테이크

호세 아리에타 와드

몹시 기다리게 됨

교회의 많은 회원뿐만 아니라 활동이 저조한 회원도 매달 아 리아호나(포르투갈어 판)가 나오기를 몹시 기다립니다.

대관장단 메시지는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주님의 대표자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은 느낌을 전해 줍니다.

이 잡지에는 모든 연령층을 위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일지라도 이 잡지를 좋아합니다. 그 책이 도착하면 어떤 독자들은 지역 소식란을 먼저 살펴보고,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곧 그들이 방문하는 자매에게 전해 줄 방문 교육 메시지를 찾습니다.

우리는 매달 성도들이 "이번에 나온 아 리아호나는 참 좋아요! 어떤 기사는 특별히 나를 위해 쓰여진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에게 본 잡지는 그들과 교회를 연결시켜 주는 유일한 고리입니다.

알시나 페네도 티노코 바르보사

브라질 상파울로 스테이크, 아르딤 카싱구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름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지니고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내 곁에는 언제나 이러한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좋은 잡지, 즉 매달 나를 찾아오는 성도의 벗이 있습니다.

나는 이 잡지를 통해서 구세주의 메시지가 참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과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벗에는 다른 잡지에 없는 영감을 주는 간증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가뭄에 타들어간 대지 위에 내리는 단비같이 성도의 벗은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절망과 좌절, 슬픔과 낙담을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알려 줍니다.

나는 성도의 벗을 사랑하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더욱 더 많은 성도들이 성도의 벗을 사랑하고 물문경의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강우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1990년 4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벗은 연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에스라 태프트 밴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에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말런 에이치 옥스, 엘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크트

고문: 맥스 디 피네가, 진 알 쿡, 제프리 알 홀런드, 프란시스 엠 기븐스, 윌리엄 알 브래드 포드

통 권: 제287권, 제288권, 제4호

등록: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1990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홍 무 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영 인쇄 주식회사 이 세 용  
© 1990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1990년 2월 24일 제3종 우편물 (나)인가

많은 격려와 힘을 얻게 됨

데 스테르(독일어 판)를 받자마자 하는 일은 대관장단 메시지를 읽고 난 후 생활에 적용시켜야 할 내용이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원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쓴 기사를 읽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회원에 관해 특히 유럽 지역의 회원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 많은 격려를 받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치적, 사회적인 조건이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나라에 살면서도 복음 원리를 굳게 지키는 회원에 관한 기사를 읽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들의 경험담은 분명히 전세계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회원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그리에트 누우트

네덜란드, 니메겐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료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1990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PBMA9004KO Printed in Korea 4/90



#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가장 위대하신 분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또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신 그분이 살아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달은 전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도마를 제외한 열 명의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나 도마는 그 당시와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요한복음 20 : 25)

도마와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 주시오. 바로 우리 눈과 귀와 손 앞에서 증명해 보이시오.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 없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입증될 수 있는 물적 증거 이외의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그러나 팔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도마를 가리키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에 놀라 떨며 도마는 주님께 이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요한복음 20 : 26~29 참조)

###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의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주님의 상처난 손을 만지는 도마에게 주어졌던 말씀,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가장 위대하신 분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의 비할데 없는 생애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가 구약의 여호와요 신약의 메시아이며 죽었다가 부활하였으며 그가 서반구를 방문하여 그곳의 주민을 가르쳤으며 이 마지막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여셨고 또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신 그분이 살아 계심을 믿으십시오.

요한은 창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한복음 1 : 3)

밤에 별빛 아래 걸어 본 사람, 봄의 손길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편 작가가 한 말을 되풀이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시편 19 : 1~2)

지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에는 위대한 창조주께서 손수 만드신 흔적이 남아 있으며 그 손은 바로 도마가 만져 보고자 했던 손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시내산의 천둥 속에서 돌판에 글을 쓰신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찌니라”(출애굽기 20 : 3) 인간 관계를 다루는 모든 훌륭한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법률을 생각해 볼 때 그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주신 이 간단한 말씀에 뿌리를 박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고대의 모든 예언자들이 성신의 감동을 받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영감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언자들은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오시게 되었는지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베레트 그림

그분을 대신하여 왕을 꾸짖고 국가를 책망하고 선견자로서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을 내다 보면서 계시의 능력으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사야 7 : 14)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이사야 11 : 2)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 : 6)

바로 이 분이 여관에 거할 방이 없어 마굿간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 말고 믿으십시오. 천사는 시현으로 이러한 광경을 미리 본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니파이일서 11 : 16)

이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를 증오하게 될 사람들 가운데 속국의 마굿간에서 태어나셨는지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의 합창이 그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그에게





경배드린 목자들이 있었고 동방에 새로운 별이 나타났으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에게 예물로 드리려고 먼 여행을 해 온 박사들도 있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임금께 예물을 바친 그들은 아기의 작은 손을 만지면서 기이함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예언을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은 그 손을 두려워하여 그 손을 없애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죄없는 어린 아기들을 모두 죽이고 무서운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계시의 능력으로써 예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한복음 1:29) 요단강 위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된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태복음 3:17)

그는 기적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고 믿으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여호와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이 지구의 원소와 생명의 모든 기능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가나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는 앉은뱅이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의사인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받으신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시대에 살았던 자들, 그 이전에 살았거나 그 이후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진 자로서 참으로 그를 믿었던 자들에게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28~30)

### 신앙을 유지함

언젠가 나는 조국을 떠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조국이 패망함에 따라 그는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도망할 수 있었지만 그는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무런 소식도 나누지 못한 채 3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음식은 형편없었으며 생활 환경은 말이 아니었고 나아질 전망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어두운 세월을 어떻게 견디어냈습니까?”라고 내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앙 때문이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가벼워지더군요.”

한번은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목이 마르셨습니다. 주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시다가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주님은 그의 가르침에 있는 구원의 능력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한복음 4:13~14)

더 계속하여 대화를 나누시다가 우물가의 여인이 “그리스도라 하는” 약속된 메시야에 대하여 말하자 주님은 분명한 어조로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요한복음 4:26)

그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그의 영원한 능력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할 데 없는 생애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한복음 11:25~26)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 이처럼 귀한 말씀이 또  
있겠습니까?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도마도 있었으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도마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몸을 스스로  
일으키실 수 있는 권세를 의심하여 주님의 손에 있는  
상처를 만져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 다른 증거들

우리도 도마처럼 그리스도의 비할 데 없는 생애와 권세에  
대한 증거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구세계의 성약인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출현된 신세계의 성약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몰몬경이며 거기에는 아름다운 언어와 영으로  
충만된 또 다른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그가 당시에  
가르치고 있던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다른 양떼가 있으며  
그들도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한복음 10:16)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얼마 후 서반구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던 바운티풀이라는 곳에 모인 무리에게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말씀하시되,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 하시느니라

“...저들이 보매 하늘로부터 인자가 하강하시는데, 흰  
옷을 입으셨더라 저가 하강하사 무리 가운데 서심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니파이삼서  
11:7~8, 10)

그는 도마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 자기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만져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놀라  
외쳤습니다. “호산나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복되리로다.”(니파이삼서 11:17)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훌륭한 증거인 이 책을 읽은  
수백만 명이 그러했듯이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누구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훌륭한 새로운 증거가 진실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밖에도 또 다른 증거자가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변형의 산과  
바운티풀 땅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으며 또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런 시현을 통하여 어린 소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어린 소년은 부활하신 주님의 예언자로서 말씀했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처럼 많은 증거와 성신의 능력으로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확신으로 나는 분명하고 진지하고  
사랑에 찬 언어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간증을  
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요한복음 20:27)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계명을 지키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비할 데 없이 훌륭한 그분의 인도와 위로를  
받으십시오. \*

### 가정 복음 교사를 돕기 위한 제안

1. 오늘날에도 도마와 같이 영적인 것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요구하면서 “우리 눈 앞에서 증명해 보시오.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겠소.”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2.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즉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세상의 창조자요 구약의  
여호와요, 신약의 메시아이며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여시고  
오늘날 우리의 구세주와 구속주로 살아 계심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경전상의 증거는 신약,  
몰몬경 및 어린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아버지와 아들의  
시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영원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



사진 : 웨딩 앤더슨

그 시간을 친구와 함께 나누십시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누가복음  
22 : 19)

어느 일요일 아침,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큰 병원의 간호사인 자날리  
게일은 환자들을 위한 교회 모임이  
있다는 광고를 들었다. 자날리는  
환자들에게 참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지만 대부분 참석하기에 너무  
아프거나 지쳐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말일성도인 한 여성이  
말일성도 모임에 참석하고 싶다고  
했다. 자날리는 빨리 환자가 일어나서  
머리를 빗는 일을 도와 주었다. 환자는  
고통을 계속 느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얼마 후 그 여인은 자날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교회에 오도록  
도와 주어서 고마워요. 나는 너무나  
아파서 오랫동안 참석하지 못했어요.  
성찬을 취할 때...”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두 여인은 함께  
눈물을 흘렸다.

구세주를 기억하는 성찬식은 매우  
중요한 의식이다. 매주 우리가 취하는  
상징물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짚어지고  
우리가 그의 제자임을 나타내겠다고  
침례식에서 맺은 성약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다. 떡과 물을 축복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 생각하고  
그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는  
침례 성약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받을  
수 있는 축복, 즉 주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상기하게  
된다.

얼마나 훌륭한 약속의 말씀인가!  
자날리의 환자가 성찬을 취하면서  
위안해 주시는 주님의 영을 느꼈듯이  
우리도 영의 위안과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할 때 맺은  
성약을 지키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을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  
사람과 화해를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구세주의 모범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모범에 따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매주 우리가 취하는

상징물은 우리가

침례식에서 맺은

성약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다.

1.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가 성찬을 취하려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축복을 받은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

2. 성찬을 취함으로써 구세주를 더욱  
잘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언한다.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가정의 밤 자료집, 55~63페이지에서  
관련 자료 참조)



# “#1. 댄에게 잘 할 것”

바바라 워크맨

어느 날 나는 부엌에 앉아 나의 생활에서 향상시켜야 할 모든 분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가족 역사 탐구, 정규적인 운동,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 가사 정리 등 해야 할 일은 많았다. 생각하면 할수록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해야 할 일들을 여러 분야로 나누기로 했다. (1) 기도, 경전 공부, 일지 작성, (2) 가사, 세탁, 식단 계획, (3) 개인 건강, (4) 가족 활동 및 자녀와의 시간, (5) 기억의 책, 개인 역사 및 가족 역사 탐구

나는 벽찬 느낌이 들어 싱크대 옆에 서 있는 남편 댄에게 그의 의견을 물었다. 나는 그에게 목록표를 건네 주며 중요한 것부터 순서를 정해 보라고 했다.

그는 잠시 훑어보더니 만면에 미소를 띄우며 목록표를 내게 다시 건네 주었다. 그는 번호를 붙여 주기는 했지만 2번부터 번호를 매겼다. 목록표 아래에다 그는 이렇게 썼다.

“#1. 댄에게 잘 할 것”

우리는 웃으면서 껴안았다.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 1번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그 많은 일들을 단번에 수행하는 일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그 목록표는 나의 기억의 책에 끼워져서 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를 기억하는 데 평생토록 도움이 될 것이다.\*





말일성도들은 플로렌스와 같은 도시 내에 교회를 세우고 있다.



우측 : 레이크 코모 근처에 위치한 집안에 있는 베이라 선교부장 부부. 베이라 선교부장은 밀라노 스테이크의 최초의 스테이크 부장이었으며, 현재 이탈리아 카타니아 선교부장이다.





# 이탈리아의 성도들

돈 엘 씨얼

이탈리아인들에게 복음의 날은 밝아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행복과  
화평을 발견하고 있다.

## 젊은

대학생인 주세페 파스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으므로 무신론자인 친구들에게서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주세페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 그는 또한 그의 조상들이 다니던 교회가 다소 불완전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교회에서 그는 기본적인 도덕의 원칙은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무엇인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나머지 진리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더 많은 진리를 얻기 위해 그가 드린 기도는 응답이 없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이 의롭지 못한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자선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가운데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자 했다. 그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병원 밖에서 “가두 전도”(들고 다니는 전시물을 거리에 펼쳐 놓고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 것)를 하고 있는 두 명의 말일성도 선교사를 만났다. 그는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공부를 한 뒤에 개종을 했다. 그렇지만 그는 처음에는 침례에 관해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가족들은 그를 몹시 나무랐다. 친구들은 수백 명이 서명을 하여 그에게 “참된 교회”로 다시 돌아오라는 청원서를 보내기까지 했다. 성직자라면 그의 마음을 되돌이킬 수 있으리라는 소망으로 사람들은 튜린의 추기경과 접견을 하도록 주선했다. 그들은 친구가 되었다. 결국 젊은 주세페가 그의 믿음에 충실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추기경은 그에게 그 믿음을 계속 지키도록 권고했다.

주세페 파스타는 교회 회원이 된 지 20년이 지났다. 이탈리아에서 말일성도 개척자가 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다. 그는 교회가 이탈리아에 최초로 지역 사무실을 열면서 그를 고용하기 전에는 17년 동안 피아트 회사에서

중역으로 있었다. 성전 인봉자로서 그는 스위스 성전에서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을 영원히 인봉시키는 특권을 누렸다. 현재 이탈리아의 로마 선교부장인 그는 다른 이탈리아인들을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오는 약 150명의 젊은 선교사를 관리하고 있다.

파스타 부장처럼 많은 이탈리아의 말일성도들은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후에 그들의 생활을 정리하여 교회로 들어왔다. 그들 대부분은 파스타 부장처럼 그들 가족과 나라 안에서 개척자인 것이다.

사르디니아 섬에 있는 안토니오 무라는 문을 두드리는 선교사를 두 번이나 되돌려 보냈다. 선교사들이 세번째 방문을 했을 때 그들은 문에서 대답하는 사람에게 집안에 그들이 가져 온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주님의 영이 세 번이나 이곳으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토니오 무라는 결국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는 “그것은 마치 내가 모르고 있던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창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는 물론경을 탐독했다고 회상한다. 1973년에 침례를 받은 이래로 그는 지방부장을 위시하여 여러 지도자의 직책에서 봉사하였다.

멀리 남쪽 시칠리아 섬에 있는 로사리오 비르질리토아와 그의 약혼녀는 1984년도에 교회에 가입했을 때 가족으로부터 반대를 받았다. 시칠리아 섬에서는 교회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매우 강한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은 그러한 결혼 대신 멀리 스위스에 있는 성전이라 불리우는 곳에서 결혼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가슴아프게 여겼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행했다. 로사리오와 현재 이탈리아 카타니아 선교부에 있는 카타니아 지부에서 장로 정원으로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의 가족 내에서 선구자인 그는 자신의 모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족이 유심히 지켜 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교회의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지배적이다.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통적으로 지켜온 교회 이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약 140여년 전에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있던 로렌조 스노우 장로가 선교 사업을 하면서 당면했던 어려움이 바로 이러한 교회의 강한 전통이었다. 그가 선교 사업에 성공을 거둔 것은 이탈리아의 카톨릭교인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북쪽 지방에 있는 신교도들인 왈덴세스 교도들 가운데서였다.

1850년 10월 19일에 그와 세 명의 선교사 동반자들은 이탈리아 쪽에 접한 알프산 기슭에 있는 토레 펠리스 근처의 어느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들은 그 산을 브리감산이라고 명명했으며 그들이 예언의 바위라고 부른 바위에서 스노우 장로는 그 땅을 복음 전도지로 헌납했다. 10월 27일에 그들은 최초로 침례주었다고 기록했다.

스노우 장로는 다른 지역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이탈리아에서의 선교 사업은 계속되었으며 스위스로 확장되어 갔다. 1854년 선교부의 명칭이 스위스 및 이탈리아 선교부로 되었을 때 이탈리아에는 세 개의 지부에 육십 사명의 회원이 있었다. 오십 명의 개종자가 이미 미국으로 이민을 간 상태였다.

점차 선교사들이 멀리 부름을 받아 떠났고 교회 조직은 약화되었다.

2차 대전 이후 이탈리아에 주둔한 미군들이 다시 교회를 부활시켰다. 1960년대 초에 그들과 가족들은 스위스 선교부 산하에 지부와 그룹을 조직하였다. 이들 지부와 그룹 내에는 적은 인원이지만 빈센초 디 프란체스카와 같이 복음을 알게 된 이탈리아 회원들도 있었다. (성도의 빛, 1988년 6월호, 14페이지 참조) 미군들도 몇몇 지역 주민을 개종시켰다. 1964년 중반에 스위스 선교부는 이탈리아에 229명의 말일성도가 있다고 기록했다. 1965년 2월 27일에 스위스 선교부는 이탈리아어로 된 새로운 물문경과 더불어 이탈리아 지역을 조직하였다. 튜린, 밀라노, 브레시아, 베로나, 비센자 및 포르테네 등지로 선교사가 파견되었다.

1966년 11월 10일에는 116년 전에 스노우 장로가 이탈리아를 선교 사업을 위해 헌납했던 곳과 거의 같은 지점에서 십이사도 평원회의 예즈라 테프트 벤슨 장로가 그곳을 복음 전도 지역으로 재헌납했다. 헌납 기도에서 성신권의 권능과 영감을 받은 그는 수많은 이탈리아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 예언적인 말씀은 성취되었다. 1989년 현재 이탈리아에

있는 교회 회원수는 14,000명이 넘으며 이탈리아 밀라노 선교부, 이탈리아 로마 선교부, 이탈리아 카타니아 선교부 등 세 개의 선교부와 밀라노 이탈리아 스테이크와 베니스 이탈리아 스테이크가 있다. 이 회원들 가운데 삼분의 일 정도가 두 스테이크에 밀집되어 있다.

북부 이탈리아에서 교회가 지니고 있는 힘은 밀라노에서 열렸던 일요일 아침 스테이크 대회에서 보여졌다. 회원들은 밀라노 극장을 가득 채웠으며, 시장이 잠시 방문하여 말일성도에게 우호적인 말을 전하였으며 말일성도들이 실천하고 있는 영원한 가치관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한 일은 몇 년 전만해도 이탈리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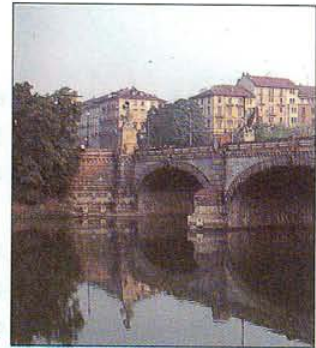
스테이크 부장인 라이몬도 카스텔라니 형제는 현재의 이탈리아에서 교회가 지니고 있는 힘을 여러 면에서 대표하고 있다. 그는 겸손하고 매우 영적인 사람이며 존경받고 정열적이며 앞을 내다보는 사람으로서 기계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회사의 총무 부장이기도 하다. 1983년에 회원이 된 그는 자신과 아내가 침례받은 후 주변 사람들이 지나치게 전통에 얽매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려 했다고 회상한다. 이제 카스텔라니 부부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 준다. 그는 옷깃에 금으로 된 말일성도 핀을 꽂고 다니는데 그것때문에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곤 한다.

비슷한 경우로 베니스 스테이크의 부장인 클라우디오 이 루트만도 겸손한 사람이다. 카스텔라니 부장처럼 그도 식당에서 사람들의 시선에 관계없이 음식 축복을 위해 조용히 머리를 숙인다. 이탈리아에서 그의 헌신은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을 자아내게 한다. 국내에서 잘 알려진 방송국의 중역인 그는 신뢰받는 정열적인 사람이다.

루트만 부장은 서쪽으로는 베로나 지역을 지나며 남쪽으로는 볼로냐 지역 너머까지 펼쳐져 있는 베니스 스테이크의 동쪽 경계 끝에 위치한 트리에스테에 살고 있다. 이탈리아의 넓은 지역과 인구의 사분의 일 정도가 그의 스테이크 내에 속해 있다. 그의 집에서 베니스 근처의 메스트레에 있는 스테이크 센터까지는 163킬로미터나 된다.

다른 스테이크나 와드의 지도자들도 그들의 교회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이와 비슷한 거리를 여행한다. 예를 들어 레나토 마리니는 밀라노에 있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왼쪽 :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건축가 지오바니 바티스타 토논. 그는 1968년에 교회 회원이 되었으며 여러 직책에서 봉사해 왔다.

위 : 이탈리아 밀라노 선교부 경계에 위치한 유서깊은 도시 튜린.

아래 : 현재 시칠리아 섬 카타니아 지부에 속해 있는 로사리오 비르질리토와 그의 아내는 1984년 교회에 속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서쪽으로 120킬로미터나 떨어진 지역에 있는 튜린 지방부를 관리한다. 그는 두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중간 지점 보그헤라에 살고 있다. “나의 생활은 삼각형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어떤 회원과 지도자들은 모임과 활동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여행하는 데 효율적인 기차를 이용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연료비가 무척 비싸다. 중형 차량의 경우 연료 탱크에 휘발유를 채우려면 55,000리라(미화로 40불 이상) 이상이 된다. 그들은 그 경비를 어떻게 부담하는가? “많은 경우에 돈이나 수표로 할 수 없는 일을 신앙이 해내지요.”라고 루트만 부장은 웃으면서 말한다.

이탈리아 로마 선교부에 소속된 로마 지방부의 움베르토 파그나니 지방부장은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거리 문제는 그들이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되게 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의 하나가 된다고 말한다. 심지어는 로마의 수도권 지역에 있는 여러 지부에서조차 청소년들은 모임이나 활동에 참석하기 위해 시내 버스에서 두 세 시간씩 시간을 보낸다.

말일성도들이 비교적 드문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부모와 지도자의 도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피사에 있는 열 다섯 살된 로렌조 마리아니는 교회에서 성장한 청소년으로 그의 지부에 있는 활동적인 청소년 가운데 기록상으로 삼분의 일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의 연령 그룹의 교회 활동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20대인 그의 누나 실비아 자매의 연령층보다는 자주 갖는 편이다.) 16세 된 일라리아 그란데와 그의 오빠인 루시아노는 이제 십대를 벗어날 연령으로서 피사 지부에 있는 또 다른 두 명의 청소년이다. 루시아노와 일라리아는 모두 비회원과 데이트를 한다. 그들의 부모는 이 두 청소년이 말일성도가 아닌 사람을 만나는 일을 걱정하고 있는가? 그들의 아버지인 니콜라 그란데는 그렇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활동적으로 선교 사업을 해온 그란데 형제는 실질적인 접근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즉 그는 그의 자녀들이 데이트하고 있는 사람들을 개종시키도록 자녀들을 도와 주려고 노력한다.

루트만 부장은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말일성도의 훌륭한 모범과 강한 신앙으로 인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가족 중심의 문화를 가진 그들은 교회가 가족을

강조하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베로나 와드의 선교 사업을 위한 모임에서 베니스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인 루이지 파리나쥬는 비회원 방문자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었는가에 관해 간증했다. 그의 나머지 가족들도 그에 못지 않게 선교 사업에 활동적이다. 그의 아내는 비회원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물몬경을 전달하고 있으며 그의 어린 자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확신으로 학교 선생님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이 된 지 오래된 많은 회원들은 말일성도 2세대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사람들이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좀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튜린에 있는 열여섯 명의 안토니오 사마시시아와 열 네 살된 그의 동생 다닐과 같은 청소년은 어쩌면 1세대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사마시시아 형제들의 표준이 친구들의 표준과 충돌하게 될 경우 그들은 타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지부에서 그들은 회원이 많은 곳에서 성인들이 맡게 되는 음악과 초등협회 부름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토리노 지방부에 있는 청소년의 수는 적지만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이 너무나 열성적이기 때문에 그들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칠리아 섬의 팔레르모에 있는 아나스타시아 리 비그니는 지방부 및 지부 청년 회장이자 그녀는 남편이 뉴욕 시티에서 오페라의 경력을 쌓는 동안 그곳에서 개종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봉사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바로 이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관리하는 청년들이 그와 같은 소수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복음대로 생활할 때 당면하는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복음이 그들의 생활에 가져다 주는 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아주 아름답고 강합니다.”

로마에서의 어느 일요일 아침 노멘타노 지부의 초등협회에 속한 소수의 어린이가 성찬식에서 “주 섬기라”를 부르기 위해 회중 앞에 섰다. 노래를 들으면서 어린이들이 장차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의 교회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자체의 미래를 변화시키리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그들은 어떻게 교회에 들어왔는가?

**많은** 이탈리아의 회원들은 그 나라에 전해져 오는 강한 전통을 깨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 큰 신앙을 나타내 보여야 했다. 어떤 회원들에게는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 그들의 결심과 간증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 그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밀레나 몬트라시오  
자매(밀라노)와 로사리오  
사코네(팔메로). 이들이 모두  
침례를 받았다고 발표했을  
때 가정 내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했었다.

### 토마소 카스트로

토마소 카스트로는 꿈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았는데 어머니는 그에게 자신이 영생에 관한 매우 중요한 것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가 알고 있던 종교는 그러한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여자 친구 한 명이 집에 미국인 선교사들을 초대했는데 그들을 난처하게 하려는 일을 도와 달라는 요청을 토마소에게 했다. 토마소는 그곳에 갔지만 그들을 놀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선교사들이 구원의 계획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가르침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 발전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곧 토마소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곧 선교사를 만나기 시작했으며 얼마 후에 침례를 받았다.

카스트로 형제는 현재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으로로서 밀라노 남부에 있는 파비아에 살고 있다.

### 밀레나 몬트라시오

밀레나 몬트라시오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다시 침례받을 필요가 없음을 알려 주시고 교회를 바꿈으로 해서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랬다. 그러나 그녀가 받은 응답은 그것이 아니었다.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교리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로 하여금 그토록 고통스러운 희생을 치르게 하셨는가?”하는 것과 같은, 그녀가 오랫동안 품어온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 주었다. 물론경에



마리오 모로(위)는 선교사와 만나기도 전에 이미 몰몬경을 읽었다. 로베르또와 지오바나 마리오가 개종하는 데에는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남편은 그녀가 그 책을 읽으면서 우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이에요.”라고 설명했다.

밀레나의 남편은 선교사 토론에 참여했지만 종교에 흥미를 갖지 않았다. 밀레나가 침례받을 계획이라고 남편에게 말했다 때 그는 그들이 사는 사회에서 큰 영향을 주는 교회를 떠남으로써 가족을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한다며 화를 냈다. 그는 만약 아내가 침례를 받을 경우 집을 떠나라고 협박했다.

그녀는 이제까지 남편이 그녀를 필요로 할 때 늘 충실했으며 도와 주었다. 이제는 그가 도와줄 때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만약 남편이 반대한다면 침례는 받지 않겠지만 그러나 “나는 침례를 받은 사람처럼 생활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얻은 간증은 거부하기에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에요.”라고 말했다.

남편은 아내의 확신에 감동되어 다시 선교사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다. 몬트라시오 부부는 1985년에 함께 침례를 받았다. 그는 밀라노 스테이크의 몬사 와드의 감독이며 그녀는 와드 청녀 회장을 포함한 여러 직책을 맡아 봉사하고 있다.

#### 마시모와 다비엘라 로 모나코

마시모 로 모나코는 아내에게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 의심을 갖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으시는가?

그러나 다니엘라 로 모나코는 최근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직장에서 어떤 중대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으며 그 결과를 두려워했다. 그녀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상사에게 이야기했을 때 문제는 놀랍게도 아주 쉽게 해결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시 감사를 드리며 기도했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옵니까?”

얼마 후 두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문을 두드렸다.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동안 다니엘라 로 모나코 부부는 복음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에 답을 주었음을 알고 곧 침례를 받았다. 그는 현재 피사 지부의 지부장단 제1보좌이며 그녀는 초등협회 회장이다.

#### 마리오 모로

마리오 모로는 자신이 왜 1973년에 서점에서 그 이상한 책을 사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책은 그를 사로 잡았다. 그는 어디를 가나 그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다.

어느 날 그의 사무실을 찾아온 두 명의 말일성도 선교사들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몰몬경을 보고는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그 책에 관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그것을 한 번 읽었으며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들이 가르쳐 준 모든 것에 대해 좋게 생각했지만 침례에 관해서는 한 달 동안이나 고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사무실 문을 닫고 그가 해야 할 바에 대해 기도를 드렸다. 대답은 너무나도 강력했다. 그는 즉시 선교사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선교사들은 그의 결심을 기다리며 여러 날 동안 물을 받아 놓았던 침례탕에서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 침례를 받자마자 모로 형제는 그날 오후 회원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선교사들과 함께 나갔다.

그는 현재 이탈리아 로마 선교부 산하 사르디아 지방부장단 제2보좌로 있으며 사사리 지부의 선교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다.

### 로베르토와 지오바나 마리노

지오바나 마리노는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몇 가지 내용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 참으로 우리 시대에 참된 예언자와 같은 훌륭한 인물이 있을까 하고 그녀는 의아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그녀는 선교사들이 그녀의 가정에 가져다 준 영적인 분위기를 좋게 여겼다. 그녀는 처음으로 물문경을 읽었으며 그때 받은 깨우침은 마치 2천년 전에 이탈리아의 어느 지역에선가 복음을 가르쳤던 그 이전의 눈먼 바울에게 주어진 병고침처럼 그녀에게 왔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영적인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았다고 회상한다.

그녀의 남편 로베르토는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특별히 영원한 결혼에 관한 교리는 그에게 중요한 것 같았다.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구한 기도는 응답되었다. 마리노 부부는 1975년 1월에 침례를 받았다.

일 년 후쯤 그들이 스위스 성전에 갈 준비를 하면서 마리노 자매는 선교사를 만나기 얼마 전에 드렸던 기도를 기억했다. 그녀는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의 아들이며 예수께서 왜 돌아가셔야 했으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알기 위해 기도를 드렸다. 그녀는 그 기도에 대해 직접 응답받은 것에 대해 감사드렸다.

마리노 부부는 시칠리아 섬의 시라쿠사에 살고 있다. 그는 현재 이탈리아 카타니아 선교부장의 보좌로 봉사하고 있으며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교회 홍보 관계를 담당하고 있다.

### 로사리오 사코네

말씨가 상냥한 로사리오 사코네는 1981년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그에게 구원의 계획에 관해 이야기했을 때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결국 누군가 나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흥분을 감추지 못한 그는 친구들을 지역에 있는 피자집에 모아 놓고 선교사들로 하여금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게 했다. (그중 한 사람은 후에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로사리오의 개종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한번은 침례를 취소하려 했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확신에 찬 말은 로사리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 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감동받은 사람의 가슴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많은 가족이 그가 곧 침례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상황은 견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아파트로부터 흘러나오는 그의 가족의 울음과 호소와 논쟁은 그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함께 사는 다른 아홉 가족이 토론을 하게 까지 했다. 결국 로사리오의 상황을 진정시키고 그의 어머니에게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이 결코 가족의 위신을 떨어뜨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오히려 그 결정을 함으로써 그가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때가 되자 그의 가족은 그가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칠리아 섬의 팔레르모에 살고 있는 로사리오의 후로 지금까지 이탈리아 로마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교회 가족 역사과에서 출생, 사망 및 결혼 기록을 마이크로 필름에 담는 일을 하고 있다.\*

### 이탈리아의 교회 약사

1850년—십이사도 평의회는 로렌조 스노우 장로가 이탈리아를 복음 전도 지역으로 헌납.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신교도 그룹인 왈덴세스교도 가운데서 선교 사업 시작. 여러 개의 지부가 조직되고 회원들이 유타로 이주함.

1964년—스위스 선교부는 이탈리아에 약 229명의 말일성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함. 그러나 대부분이 미군이었음.

1965년—스위스 선교부에서 이탈리아 지역을 조직함.

1966년—십이사도 정원회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가 이탈리아를 복음 전도 지역으로 재헌납함. 이탈리아 선교부가 조직됨.

1971년—이탈리아 선교부가 이탈리아 북부(후에 이탈리아 밀라노 선교부)와 이탈리아 남부(후에 이탈리아 로마 선교부)로 분리됨.

1975년—이탈리아 파도바 선교부가 조직됨.

1977년—이탈리아 카타니아 선교부가 조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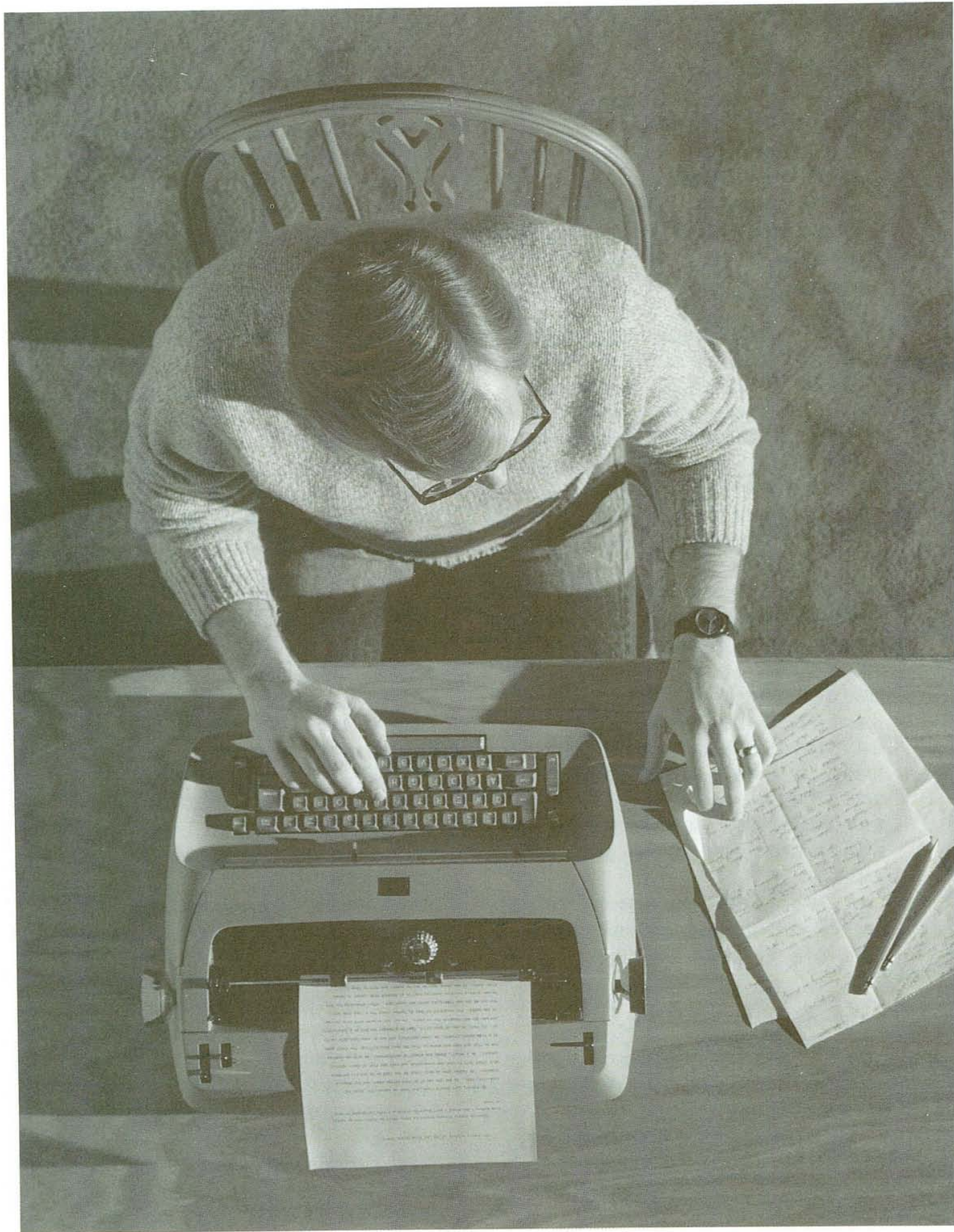
1981년—이탈리아의 최초의 스테이크인 밀라노 스테이크가 조직됨.

1982년—이탈리아 파도바 선교부 지역과 그 회원들이 다시 이탈리아 밀라노 선교부와 이탈리아 로마 선교부로 속하게 됨.

1985년—이탈리아의 두번째 스테이크인 베니스 스테이크가 조직됨.

1988년—연말 현재 교회 회원수, 약 13,500명.\*







# 제가 전기 작가라구요?

제네트 제르만

생애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몇 가지 기본 단계를 따른다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처**음에 나는 단지 어떻게 나의 할머니가 그 적은 수입으로 여섯 명의 자녀를 길렀는지에 관해 흥미를 가졌었다. 나는 메모를 해가며 할머니와 여러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 나는 또한 가족 행사에 관해 어머니와 고모 및 삼촌에게도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나는 내가 사촌 지니로부터 할머니의 전기를 쓰라는 제언을 받을 때까지 그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할머니의 전기를 쓰기 전에 어머니의 전기를 써야 할 필요를 느꼈다. 어머니는 51세였지만 병약하여 앞으로 1년도 더 살지 못하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어머니에 관한 내용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지니와 나는 함께 역사를 쓰는 일을 시작했다. 지니는 제목과 날짜를 분류하여 확인했고 나는 역사를 써내려 갔다. 그 기록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곧 완성되었다. 가족들은 그 전기를 읽고 기뻐했다. 다른 사람들도 역시 가족 이야기를 쓰고 싶어하지만 그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전기 또는 개인 역사를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침을 모아 보았다.

## 시작

짧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를 쓰고자 하는 사람은 친척 각자에 관해 50여 페이지씩 쓸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쓰기를 원치도 않을 것이다. 출생 장소 및 시기, 살았던 곳과 직업, 결혼한 사람과 자녀의 수, 사망 장소 등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포함시킨다. 외모, 성격, 그 사람에게 중요했던 것들도 설명한다.

다른 대부분의 일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작하는 일일 것이다.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한다.

1. **격식을 차리지 말 것.** 예를 들면 말수가 적고 연로한 아주머니에게 너무 갑작스럽게 아주머니에 관한 전기를 쓰려고 하니 모든 것을 다 말해 달라고 하지 않도록 한다. 아주머니는 오히려 당황하여 그녀가 말해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내용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천천히 시작한다. 아주머니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족에 관한 질문을 한다. 그녀가 말하는 내용에 관심과 즐거움을 표시한다.

2. **친척(아주머니, 아저씨, 사촌 등)에게 함께 참여하고 도와 달라고 요청한다.** 그들에게 가족의 전기를 쓰려한다는 사실을 알린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 말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중요한 일들을 기억해 냈을 때에는 연락해 달라고 말한다. 질문이 있을 때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써도 좋은가를 묻는다.

위의 두 가지 단계는 나의 친척들에게 훌륭하게 적용되었다. 예를 들면 실제로 내가 할머니의 역사에 관한 작업을 진지하게 시작하려 했을 때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에 관한 나의 질문과 대화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질문에 대답하거나 이야기를 들려 주는 데 조금도 당황하거나 수줍어하지 않았다.

### 자료 수집

자료를 수집하는 데 신중하고 진지한 시간 사용을 계획한다.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중요하고 흥미롭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 전기를 쓰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지는 못한다.

친척들과 만날 계획을 세우고 그들에게 이름, 날짜 행사 등을 차례로 적도록 부탁한다. 다음 단계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1. 전기를 쓰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연대표를 만든다. 나의 사촌 지니가 이 일을 도와 주었다. 할머니의 경우 지니가 출생과 결혼 날짜를 적어 넣은 뒤에 내가 여러 시간 동안 할머니가 성장한 장소, 다닌 학교, 졸업연도, 일했던 장소와 시기, 할아버지를 만났던 때와 장소, 그들의 자녀가 출생한 때와 장소, 그들이 살았던 곳 및 그들이 은퇴할 때와 장소 같은 중요한 이름, 시간, 장소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할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러분이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그 내용을 가까운 친구나 친척에 물어본다.

2. 연대표를 정확한 순서대로 작성하고 나면 자세한 내용을 기입한다. 나는 할머니에게 학창 시절에 어느 과목을 잘 했는지 또한 어떠한 직장에서 일을 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또한 큰 사고나 질병은 없었는지 물어 보았다. 우리는 할머니의 취미와 여행 등에 관한 이야기했으며, 가장 좋은 친구에 대해 물었고 그가 할머니에게 얼마나 중요했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나는

또한 할머니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와 슬펐던 때에 관해서도 질문했다.

3. 그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게 한다. 전기를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부모, 형제, 자매 및 자녀에 관해 말하도록 도움을 준다. 그들이 말해야 할 내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화가 끝난 즉시 들은 내용을 기록한다.

4.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 추가 자료 수집을 위해 전기 대상에 대해 노소를 불문하고 친구나 친척에게 묻는다. 나의 할머니는 어머니에 관해 나의 고모나 오빠들이 들려준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 모든 도움에 힘입어 나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오랜 세월을 통해 어떻게 변했으며 생애에서 주요 전환점이 무엇이었던지도 알게 되었다.

5.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 것. 친척이 마치 항상 훌륭했던 것처럼 기술하려 할 경우 사실적이거나 정직한 기록을 하지 못하게 된다. 나의 자녀들이 그들의 할머니나 증조 할머니에 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더라도 기록을 읽고 그를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할 따름이다. 친척에 관한 정직한 초상을 통해 후손들이 조상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스스로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나의 어머니는 알콜 중독으로 고생하였는데 나의 자녀들이 이 문제가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전기를 집필함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을 경우 어떻게 흥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쓸 것인가?

1. 연대표를 줄거리로 사용한다. 나는 전기를 연대순으로 쓰기로 했는데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교육, 유년기, 가정생활 등과 같이 분류하여 이야기를 쓸 수도 있을 것이다.

2. 초고는 빨리 쓴다. 철자, 구두점 또는 문체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 잘못은 후에 수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이다. 전기의 주인공이 출생한 곳, 부모, 그가 살고 일했던 곳 등을 그의 생애 끝까지 또는 그가 현재 처해 있는 위치까지 적는 일이다.

3.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을 다 쓸 만한 시간이나 정력이 없다. 전기를 쓰면서 덜 중요한 내용들은 제외시킨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야기나 사건에 중점을 둔다.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실은 간략하게 언급한다.

4. "사실"을 설명 및 자세한 내용과 더불어 생동감있게 표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흥미있게 된다. 예를 들어 나의 할머니는 동물을 사랑했다. 할머니가 동물에 대해 가졌던 사랑이나 손수 길렀던 애완 동물에 관한 별도의 내용을 쓰기로 했다. 나는 흥미있는 동물 이야기, 뒷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던 애완 염소에 관한 이야기도 이 부분에 포함시켰다.

5. 친척에 관해 설명하는 것을 빼놓지 않는다. 친척의 예절, 옷의 스타일 및 언어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킨다. 예를 들면 나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머리를 자세히 묘사했다. 여러 다른 지점에서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쉽게 삽입시킬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전기는 더욱 흥미있고 생생하게 느껴진다.

6. 초고가 완성되면 다시 쓴다. 철자를 확인하며, 구두점을 정확하게 찍는다. 필요한 부분은 변경시키거나 삭제한다.

그러나 너무 정확하게 하지 않도록 한다. 아직 예비 원고이기 때문이다.

7. 여러분에게 내용을 알려 준 친구나 친척에게 두번째로 작성한 원고를 한 부씩 복사해서 보낸다.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이 있는지, 수정을 해야 할 곳이 있는지 물어본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전기의 주인공을 잘 이해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말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들로부터 받은 응답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상관 없다. 사람들이 사실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한다. 일어난 사건의 진상을 도저히 알 수 없을 때는 전기에

그렇게 기록하면 된다.

8.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야기를 쓴다.

지금까지의 단계들을 밟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해야 할 일의 대부분을 마친 것이다. 그러나 완성 마감일을 정해 놓는다. 그렇지 않으면 수정을 거듭하게 되고 원고를 마무리짓지 못하게 된다.

## 전기가 완성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원고 정리를 끝내고 나면 그것을 읽어보고 자신의 업적을 즐긴다. 그런 다음 즉시 복사를 한다.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완성된 것을 한 권씩 보냄으로써 감사를 표할 수 있다.

2. 전기를 가족들에게만 전할 것이 아니라 지역 역사 협회와 같은 사회 단체에도 알리는 것을 고려한다. 교회 가족 역사 도서관은 보관을 위해 개인 전기를 받는 일에 늘 관심을 갖고 있다. (Family History Library, 35 North West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점점 더 많은 탐구자들이 가족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유명한 사람들의 생애는 물론 평범한 사람들의 생애에 관해서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특별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나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여러 알콜 중독자 치료 센터나 출판사에 알리고 싶은 것과 같은 것이다.

가족의 전기를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일은 시간도 걸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또한 흥미있고 보람있는 일일 것이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전기를 쓰는 일을 통해 나와 가족은 그들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가족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제네트 제르만은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사는 자유 기고가이다. 그녀는 두 권의 가족 역사를 썼으며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역사를 비디오에 담은 것을 계획하고 있다.



# 미안해요, 베르다

쉐론 에스 기브

## 내가

베르다를 알게 된 것은 열 세 살 되던 해,  
그러니까 중학교 일학년 때였다. 나는  
중학생이 되던 첫날을 잊을 수가 없다.

거대한 건물 내에는 복도가 끝도 없이 길었는데 복도를 따라 학생용 자물쇠 장이 죽 늘어서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조그만 농장이나 농장 근처로부터 학교 버스로 등교를 했다. 우리 학교가 도시 내에서 그리 큰 집단은 분명 아니었지만 우리는 유명해지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었다. 우리들 가운데는 교실이 모자라 길건너에 있는 전에 다니던 국민학교의 교실을 사용하러 가야 할 학생도 많았다. 나는 한 교실에서 다른 교실을 찾아가는 길을 찾을 생각으로 흥분과 두려움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나는 여름 내내 아기를 봐주는 어려운 일을 했으며 아침 다섯시에 일어나 학교에서 입을 좋은 옷을 사기 위해 딸기와 체리 등을 따서 돈을 모았다. 그러나 좋은 새 옷을 입었음에도 나는 어색하고 불편했다.

나의 친구들과 나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쓰면서 함께 몰려다녔지만 두려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는 고학년 학생들이 웃고 농담하며 확신에 찬 모습으로 복도를 오가는 것을 보고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드디어 종이 울리고 모두가 강당에 모여 신입생들이 각각 상급생에게 지명되어 주변을 돌아보게 한다는 발표가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신입생의 이름과 함께 그날 하루동안 함께 할 짝이 될 학생의 이름이 발표되었다.

나의 이름과 베르다 브라운의 이름이 발표되었을 때 나는 몇몇 친구들이 놀라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베르다 브라운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친구들 가운데는 아는 아이들이 있음이 분명했다. 상급생을 만나도 좋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이들이 내게로 몰려와 베르다가 나를 발견하기 전에 빨리 숨으라고 말해 주었다. 베르다에게 지명된 것이 몹시 불운한 일임에 틀림없었다. 나는 혼란에 빠졌다. 마음의 한쪽에서는 숨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 숨지 말라고 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었다. 결국 후자를 택했다.

그래서 나는 숨었다. 우리는 잠시동안 베르다로부터 피할 수 있었지만 곧 그녀를 보게되었다. 그녀가 예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보기에 약간 두려웠다. 정돈되지 않고 메마른 머리는 더욱 그랬다. 그녀의 웃은 할머니들이나 입는 것처럼 보였으며 구두는 갈색에다 보기에 흉했다.

나는 학급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 베르다를 만나기를 회피했으며 그녀의 참 모습에 대해 완전히 그릇된 인상을 더 크게 갖게 되었다.









하루 종일 주요 이야기거리리는 어린 세론이 베르다로부터 어떻게 숨어 다녀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베르다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을 때 그녀는 슬퍼 보였다. 우리가 왜 그녀에게 그토록 어리석게 대할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녀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우리 모두는 한 외로운 사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러한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베르다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는 것이었다. 그녀가 당황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하는 대로 따라 했다. 그러나 내 심정은 참으로 괴로웠다.

그날 오후 베르다에 대해 잊고 있는데 켄슨 선생님이 사무실로 나를 부르셨다. 그녀는 내가 국민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선생님이었으며 현재는 중학교 상담자였다. 나는 켄슨 선생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다. 켄슨 선생님의

베르다는 친구를 필요로 하는 외로운 소녀였다. 그런데 내가 그녀를 실망시킨 것이었다. 그 후로 나는 그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를 갖지 못했다.



사무실로 가는 길에 나는 온갖 상상의 나래들을 펴 보았다. 어쩌면 그녀를 도와줄 특별한 사람이 되어 달라고 하지 않을까? 아니면 나에게 시킬 중요한 어떤 일이 있는 것일까?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복도로 달려갔다.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다.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나는 선생님이 울고 계심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내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다.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모든 여학생 가운데 나는 네가 베르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유일한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너에게 지명했어.”

그날의 모든 비참했던 일들이 내 위에 무너져 내렸으며 나는 켄슨 선생님이 나에게 그토록 중요한 임무를 맡겼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흐느껴 울었다. 나는 베르다를 실망시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나 자신을 배반했다. 다음날 모두가 그 장난과 베르다에 관해 잊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거의 그녀를 볼 수 없었다. 그녀가 혼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녀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모른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너무 부끄러웠으며 그러한 자신의 행동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베르다를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내 생애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 왔다. 심지어는 현재에도 그때 그녀의 친구가 될 용기를 가졌었다더라면 하는 생각을 갖는다. 한번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는, 그러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어 30년이 지나도록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결국 어느 부활절에 그리스도의 속죄를 공부하면서 베르다에게 했던 행위에 대한 괴로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구세주의 희생과 그의 놀라운 은사를 통하여 결국 나의 짐을 벗어 버릴 수 있고 화평과 용서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달은 것에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것은 내가 그 일을 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애를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음에 대한 감사이다.

베르다의 일로 인해 나는 다시는 어느 누구에게도 고의로 불친절한 적이 없었으며 자녀들에게도 다른 사람을 친절히 대하도록 가르쳐 왔다. 나의 마음 한 구석에는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외롭고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베르다로 인해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외모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보는 일이 더 쉽게 되었다. 나는 그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함으로써 그녀에게 보상하려 해 왔지만 그러나 항상 그녀를 만나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미안해요, 베르다.”\*



# 브라질의 축제

잔 핀보로



브라질에 사는 다른 말일성도 청소년들처럼 브라질 상파울로 산토 아마로 스테이크의 청소년들도 지역 공원을 청소하는 봉사 활동을하며 “카니발”을 기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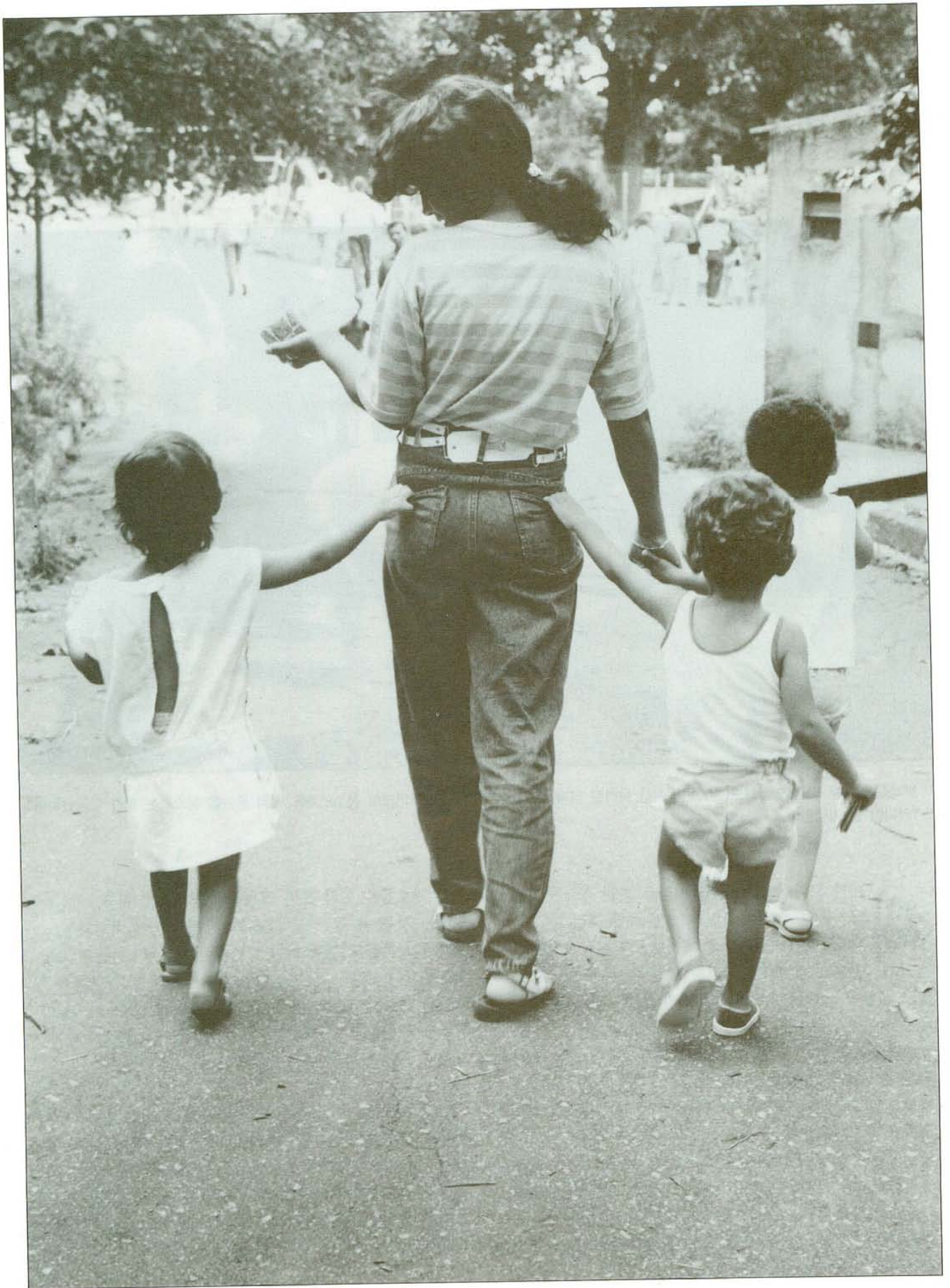
**해**마다 브라질에는 카니발이라고 하는 성대한 국가적인 축제가 열린다. 3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거리를 메운다. 그들은 마시고 춤추고 행진하고 파티를 벌인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 생활의 굴레에서 벗어나 최고의 “멋진 시간”을 추구한다.

그러나 브라질에 있는 네 개의 스테이크에 소속된 교회의 젊은 회원들은 그것보다도 더 훌륭한 “멋진 시간”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다. 축제에 참석하는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행복을 찾으려 하는 반면 이 청소년들은 특별 청소년 대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기쁨을 찾는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들은 구세주의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한 가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태복음 16 : 25)

이 가르침은 어찌 보면 역설적인 것 같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얻는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아닌가? 브라질 상파울로 산토 아마로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은 그것이 이상을 알고 있다. 청소년 대회가 시작되기 전 2주 동안 그들은 음식, 장난감, 옷 등 국립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좋아할 물건들을 모았다. 그러한 물건은 교회 회원들만이 기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도 기증하였다.

“저는 우리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이 사이좋게 지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신적인 장애자나 가정을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를로스 돈 산토스 수자, 디아테마 제2와드







청소년 대회는 토요일에 축구, 배구 및 기타 운동 그리고 로드 쇼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산도 아마 스테이크에 소속된 200명의 청소년들이 형제 자매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했다. 그들은 스테이크에서 나간 복음 선교사들에게 100통 이상의 편지를 썼다. 열 여섯 명의 제사들은 복음 선교사들과 짝을 이루어 선교 사업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120여명의 청소년의 집에 찾아가 그들에게 청소년 대회에 참가하도록 권유했다. 몇몇은 그들의 초대를 받아들여 그날 저녁 노변의 밤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헬리오 다 로차 카마고 장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기로 했다. 어떤 청소년들은 다음날 활동에 참여했다.

월요일에는 청소년들이 사회 봉사 활동을 하기로 했다. 그들은 스테이크 구역 내에서 가장 큰 과라피랑가 공원으로 갔다. 도로 가장자리와 테이블 및 울타리 등에 페인트 칠을 하는 동안 공원에 나와 있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어울려 점심도 함께 하고 교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공원 관리인은 그러한 봉사 활동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당국에서는 모든 청소년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흥겨워하고 있지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시모니, 자바카라 와드

그러나 200명의 청소년들이 화요일에 국립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매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대회를 하기 전 수 주 동안 모은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이가 더 필요로 하는 선물도 가져 갔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관심이었다. 갓난 아이부터 여섯 살까지 약 4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방문하여 기저귀를 갈아 채워 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초등학교 노래를 불러 주었다. 그들은 어린이들을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며 놀았다.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모두 많은 눈물을 흘렸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산도 아마로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은 세 시간의 간증 모임이 그들의 느낌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짧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기쁨을 느꼈다. 그들은 이러한 청소년 대회를 매년 갖기를 원했다.

몇 안되는 청소년의 조그만 그룹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세주께서는 하나의 촛불이 방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발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5:15 참조)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직접 봉사하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도 축복을 가져다 준다.

*“내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다면 이때가 그 순간일 것입니다. 나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그러한 순간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상파울로 13와드

상파울로 타보오우 스테이크는 축제 기간 동안 갖는 청소년 대회의 주제를 “세상을 변화시킴”으로 택했다. 지역에 있는 공공 건물 앞 마당을 청소하면서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물문경을 나누어 주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 선물을 거절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날은 참으로 제 생애에서 가장 훌륭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웃을 돕고 섬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여 세상 사람들도 나처럼 행복하게 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보스케 드보라, 제2와드

상파울로 이테트라구스 스테이크의 250명의 청소년들 역시 이와 비슷한 활동을 했다. 그들은 스테이크 내에 있는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에게 400통 이상의 편지를 쓰고, 케익을 만들어 연로한 회원들에게 전해 주었다. 그들은 학교에 페인트 칠을 하고 청소를 했으며 고아원을 방문하고 가족 가운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문경을 전했다.

상파울로 서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은 스테이크 선교사 기금을 마련했으며 연로한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또한 복음 선교사에게 편지를 쓰는가 하면 물문경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이 브라질의 교회 청소년들은 축제의 재미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자신 속에 복음의 빛이 더 밝게 빛나지 않고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는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 대회는 훌륭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보낸 시간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이 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 참여해 본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스테이크 내의 젊은이들이 더욱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르셀로, 제13와드 \*



# 주님의 군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악** 24년 전에 나는 템플 스퀘어 남쪽 모퉁이에 위치한 어셈블리 홀의 합창대원 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그곳에서는 스테이크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님과 엘마 소니 장로님이 스테이크 부장단을 재조직하라는 지명을 받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감독단을 포함한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대회 음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첫번째 찬송을 부르고 나서 스미스 장로님이 설교단으로 나오셔서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단의 명단을 발표하셨습니다. 부장단의 다른 일원들은 그들의 부름을 알고 있었겠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스미스 장로님은 내 이름을 부른 후 “몬슨 형제님이 이 부름에 응한다면 지금 그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합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설교단에 서서 청중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우리가 막 불렀던 노래를 상기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소년아,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라”였습니다. 나는 부장단 부름을 받아들이는 말씀의 주제로 “소년아, 예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라”를 택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찬송가의 가사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보라 당당한 군대 깃발 휘날리며  
인생의 전쟁 마당에 돌진해 나가세  
단결되고 강하고 대담한 용사들  
주 예수 대장 따라 함성도 드높게  
이기세 이기세 주 우리 구원 했으니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기세 이기세 이기세  
주 예수 따라서  
(찬송가, 169장)

신권 소유자들은 강력한 의의 군대, 즉 충성스런 군대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자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의 행진 명령은 분명하고도 간결합니다. 마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다음 말씀으로 우리의 목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19~20) 초기의 제자들은 이 성스러운 분부를 이행했습니까? 마가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마가복음 16:20)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가라신 분부는 아직도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층 강조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이 부름에 응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곧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추가될 것입니다. 새로운 선교부가 계속 조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놀랍고 도전적인 시대입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존중하는 여러분은 이 특별한 시대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생애 있어서 이러한 기회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덕성을 기르도록 권고합니다.

1. 봉사하려는 열망
2. 꾸준한 준비
3. 기꺼이 일하려는 마음

그와 같이 함으로써 여러분은 주님의 충성스러운 군대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덕성들을 하나 하나 고려해 보기로 합시다.

첫째, 봉사하려는 열망. “보라,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나니,”(교성 64:34)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성직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발적인 충동이 의무감보다 더 강해질 때까지는 사람들은 조국을 사랑해서라기 보다 할 수 없어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맡은 바 책임을 기쁘게 완수할 때야 비로소 의무가 훌륭하게 완수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부른 것도 아니며,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른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언과 계시로 부름을 주신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름은 교회 대관장님의 서명에 의해 주어집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모임을 선교사 집행 위원회 위원으로 계셨을 때 다년간 그를 보좌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특권이었습니다. 나는 선교사 지명 회의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모임은 영감이 충만했으며 간간히 유모어가 섞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한 예비 선교사에 대해 그의 감독이 썼던 추천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어머니와 매우 친근합니다. 젊은이의 모친은 아들이 켈리포니아 지역에서 선교 사업을 하게 되어 그에게 매주 전화를 하거나 종종 방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편지를 큰 소리로 읽은 후에 킴블 대관장께서 결정하신 임지를 발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그분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 젊은이를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 선교부로 가도록 명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며 입가에 떠오르던 자애로운 미소와 반짝이던 눈빛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부름을 통해 행운을 누렸던 실례는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나는 이런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을 동반하게 됨을 압니다. 우리 모두는 교리와 성약에 그토록 간결하게 천명된 진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 원할진대 그 일에 부름을 받나니”(교성 4:3)

둘째, 꾸준한 준비. 선교 사업을 위한 준비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기 전부터 선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주일학교, 신학 연구원 중등부 내의 모든 반에서 그리고 각 신권 임무 지명을 통해서 넓은 의미의 선교 사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히 인생이 형성되고 경력이 쌓여지며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론 신권 정원회의 고문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실로 큰 과제라 하겠습니다. 고문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직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청소년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나는 열 다섯 살의 소년이었을 때 교사 정원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고문되시는 형제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으며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톰, 너는 비둘기 기르기를 좋아하지?”

나는 “네.”하고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버밍햄 롤러 비둘기 순종 한 쌍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좋아요, 형제님!”하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내가 기르고 있던 비둘기는 그랜트 국민학교 지붕 위에 있는 비둘기장에서 사는 것과 같은 보통 비둘기였습니다.

그분은 이튿날 나를 그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사실 나는 하루 종일 지루하게 그 초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시간 전부터 그의 집에 도착하여 일터에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데리고 뒷뜰에 있는 작은 헛간 속에 놓인 비둘기장으로 갔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비둘기들을 보고 있을 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숫놈 하나를 골라봐. 그러면 세상의 어떤 비둘기와도 같지 않은 암놈 한 마리를 네게 줄게.” 나는 그의 말대로 숫놈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 손에 자그마한 암비둘기 한 마리를 쥐어 주었습니다. 나는 이 암비둘기가 무엇이 그리 다른 점이 있는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세히 살펴봐라, 그러면 그 새가 눈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테니.”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눈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고양이의 습격을 받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을 가져다가 한 열흘은 새장 안에서 키우다가 밖으로 다시



내보내 돌아오는지 보라.”하고 그는 권고했습니다.

나는 그의 권고대로 따랐습니다. 비둘기들을 날려보내자 솟놈은 새장 지붕 근처를 활기있게 날더니 먹이를 찾아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외눈박이 암놈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고문인 해롤드 형제님을 방문해서 “외눈박이 비둘기가 형제님 새장으로 돌아왔나요?”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따라 와라, 그러면 알게 되겠지.”하고 그는 말씀했습니다.

그는 부엌 문을 열고 나와 함께 새장을 향해 걸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툼, 너는 교사 정원회 회장이야.” 그 말씀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너는 봄을 활동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하고 내게 물었습니다.

나는 “금주에 열리는 정원회 모임에 참석시키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한 특별한 등우리에 손을 넣더니 외눈박이 비둘기를 꺼내 나에게 건네 주셨습니다. “2, 3일간 키우다가 다시 한 번 시험해 보라.”

그러나 그 비둘기는 또다시 달아났습니다. 전과 똑같은 경험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왔는지 가서 보자.” 그리고 새장으로 걸어가면서 나의 고문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이 신권회에 참석한 것을 축하한다. 이제 너는 봄과 함께 빌을 활동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겠니?”

나는 “우리는 금주 모임에 그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자진해서 말했습니다.

이 경험은 계속 되풀이 되었습니다. 나는 성인이 될 때까지 나의 교사반 고문이신 해롤드 형제님이 나에게 한 마리의 특별한 비둘기를 선물하였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새장 속에 있던 비둘기가 풀려날 때마다 그의 집으로 돌아올 유일한 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2주마다 교사 정원회 회장과 이상적인 개인 접견을 갖는 영감에 찬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그 외눈박이 비둘기에게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정원회 고문에게는 더 큰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는 내가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도록 인내심을 갖고 도우셨습니다.

셋째, 기꺼이 일하려는 마음. 선교 사업은 어렵습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이 전력투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경주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전도서 9:11) 끝까지 건디는 자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2차 대전이 끝날 즈음 나는 열 여덟 살이었고, 해군으로 복무하기 위해 떠나기 일주일 전에 장로로 성임되었습니다. 우리 와드의 감독단에서 한분이 나를

전송하기 위해 기차역에 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기차에 오르기 직전에 그는 내 손에 책을 한 권 쥐어 주셨는데, 그 책의 제목은 *선교사 지침서*였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나는 선교 사업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그것을 휴대하십시오. 아마 유용할 것입니다.”

정말 그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 전야에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집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사는 조용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옆 침대에 있는 동료이며 물론 회원인 리런드 메릴이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왜 그래, 메릴?”하고 물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위생실에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크리스마스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염려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신음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 그는 안간 힘을 써서 내게 “문슨, 형제님은 장로이지요?”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자 그는 “나를 축복해 주세요.”하고 간청했습니다.

나는 한번도 축복을 해 본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그런 축복을 주는 것을 지켜본 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해상용 가방의 밑바닥을 뒤져 보아라.”고 하는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벽 두 시에 갑판 위에서 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장방형 물체인 *선교사 지침서*를 중앙등 밑으로 가져가서 병자를 축복하는 방법을 읽었습니다. 나는 약 60명의 호기심에 찬 해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자 축복을 했습니다. 내가 물건을 모두 챙겨 넣기도 전에 리런드 메릴은 마치 어린애처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메릴은 나에게 미소를 띄우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문슨, 형제님이 신권을 가지고 있어 기쁩니다.” 그의 기쁨 못지 않게 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습니다.

미래의 선교사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과 꾸준한 준비, 그리고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축복하시어 여러분과 이 충성스러운 주님의 군대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다음과 같은 주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너희 앞에 앞서 갈 것이므로 너희 오른 편이나 왼 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 주리라.”(교성 84:88)\*

(1979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행한 말씀 중에서 발췌함)



# 나의 짐은 가벼워졌어요

호스트 샤프스

산드라 던 브림홀에게 한 이야기

우리 가족은 제1차 세계 대전 중 식량을 배급받던 때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살았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여분의 식량을 갖고 있는 농부들에게서 식량을 구했습니다. 내가 열 네 살이 되었을 때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기차표를 살 돈을 주며 시골에 가서 식량을 사 오라고 하셨습니다.

두 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나가서 나는 어느 촌락에 도착하여 집집마다 찾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40여 집 이상을 다녀 보았지만 아무도 나에게 식량을 팔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빈손으로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기차가 다니지 않는 다음 마을까지 4.5킬로미터나 걸기로 했습니다. 45분 동안 걸으면서 나는 길가에 있는 집마다 들른 끝에 한 농부를 발견하였는데 그는 나에게 45킬로그램의 감자를 팔았습니다. 나는 그 행운을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기껏해야 약간의 버터와 몇 킬로 정도의 베이컨이었습니다.

농부는 감자 자루를 나의 어깨에 비스듬히 짊어지워 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온 길을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지 않아서 나는 그 일이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자는 나의 몸무게만큼이나 나갔던 것입니다. 만일 짐을 길가에 내려 놓고 쉬다면 그것을 다시 짊어지기가 어려울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난처한 상황에서 나는 어머니가 경전의 말씀과 기도의 힘에 대해 가르쳐 준 것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물론경에서 레이먼에게 속박당해 있던 니파이인들이 주님께 그들이 짊어진 짐을 가볍게 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므로 나의 짐도 가볍게 해 주시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사이아서 24:15 참조)

나는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나는 어깨 위의 짐이 내려진 듯한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도중에 쉬지 않고 기차역까지 쉽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차역에서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경찰들은 여행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식량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감추려고 했지만 나는 45킬로그램의 감자 자루를 감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차에 올라탈 때 나는 검문을 당하지 않았으며 감자를 짐에까지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져온 식량은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가 필요로 했던 영양분을 마련해 주었으며 나는 그 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

호스트 샤프스는 솔트레이크 그랜트 스테이크, 그랜트 제8와드에 살고 있다. 산드라 던 브림홀도 그랜트 제8와드 회원이다.







#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마빈 케이 가드너

교회를 떠나 생활하던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산** 살바도르 : 감독과 지진이 그들을 돌아서게 했다.  
멕시코시티 : 그날 활동이 저조한 회원에 대한  
가정 방문은 평소와는 달랐다.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의 테이블가 돌아가고 있었으며 테이블에는 물론경이  
놓여 있었다. 이 집은 어떤 집인가?

프레블라, 멕시코 : 그는 여러 해 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새로운 가정 복음 교사로 부름받은 그의 옛  
친구가 그를 스테이크 대회에 초대했다.

에레디아, 코스타리카 : 술에 취한 그는 자동차 사고로  
등을 다쳤다. 그는 생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주님께  
간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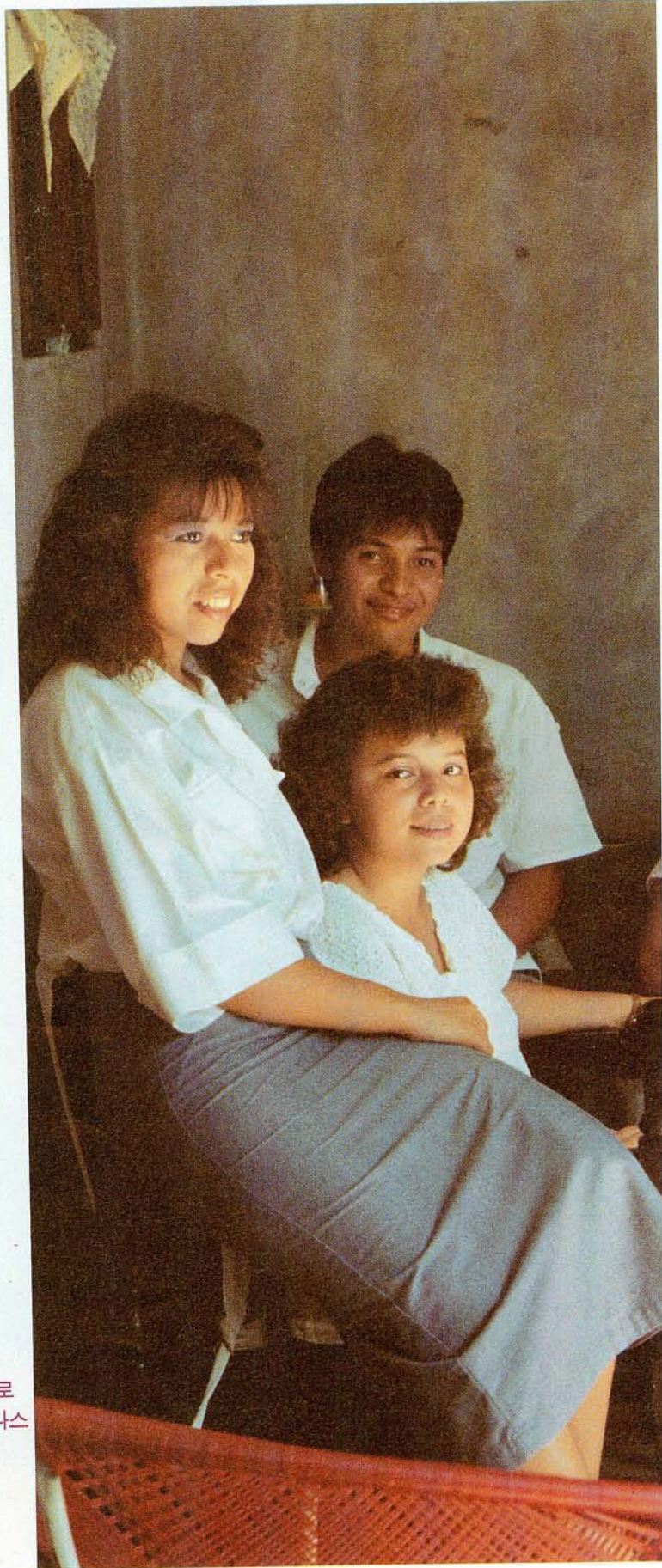
산호세, 코스타리카 :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회에 돌아가고 싶소. 제발 누군가를 보내 주시오.”

이상과 같은 회원의 재활동이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많은 회원들이 다시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본 멕시코시티의 팔마스 지부장인 호르헤 우볼디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이곳 교회에서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139명의 지부 회원 가운데 130명이 활동  
회원이다.

산 살바도르 : 감독과 지진

지진, 지진! “나는 벽이 내려앉은 것을  
보았습니다.”하고 살리나스  
자매는 말한다. “무너진  
조각들이 문을 막아  
우리는 지진의 강한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나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깨어진 벽 조각  
위를 기어올라 길거리로  
뛰어나갔어요.” 그후에  
지붕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지진이 있는 후 워드  
회원들이 보여 준 사랑으로  
인해 산살바도르의 살리나스  
가족은 다시 활동 회원이  
되었다.









살리나스 형제는 근처에 있던 그의 사무실로부터 날라온 파편 조각에 머리를 맞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가족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나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도와 주십시오.’하고 기도하면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의 아내와 여섯 명의 자녀는 집안에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모두 무사했다. 집에 질린 가족은 집을 뛰쳐 나왔다. “그러나 우리는 와드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돌아갔습니다.”하고 그는 말했다.

교회 회원들은 그들을 열심히 찾고 있었다. 지진의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집회소 건축 작업이 중단되었다. 집회소는 응급 처리 센터가 되었다. 쉼 곳, 음식, 옷, 물, 약품 및 기타 필요한 것을 얻는 장소가 되었다. 살리나스 가족은 감독이 가져다 준 천막을 그들의 집 주변에 치고 그곳에 있기로 했다. 회원들은 무너져 내린 것을 치우고 그들이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 자재를 마련해 주었다. 살리나스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도와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나는 순종하고 겸손해지는 것 이외에는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갚을 수 없습니다.”

살리나스 가족은 6년 전에 침례를 받은 이래로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친구인 라파엘 루나 감독은 그들이 일생 동안 교회를 잊지 않게 했다. “감독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신념을 잃지 않았습니다.”하고 살리나스 형제는 말한다.

그의 아내도 고개를 끄덕인다. “감독님은 자주 방문하셨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도 그랬어요. 감독님은 늘 회원과 가정 복음 교사 그리고 방문 교사들을 보내 주셨어요. 그들은 우리를 홀로 놓아 두지 않으셨어요”하고 말하며 그녀는 미소를 짓는다.

1986년 6월, 루나 감독과 와드 지도자 그룹이 살리나스 가족을 방문하여 다시 한 번 교회로 돌아오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감독은 선교사들을 보내 그들에게 토론을 다시 가르쳐야겠다는 영감을 받았다. 가족은 이따금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4개월이 지난 1986년 10월 10일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때 회원들이 보여 준 큰 사랑으로 인해 그들은 다시 개심하게 되었다.

살리나스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집이 파괴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회원들의 사랑과 주님의 보호하심이지요.” 현재 그녀는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고 있으며 남편은 신권 소유자로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자녀들은 교회에서 매우 활동적이고 또한 바쁜 시간을 보낸다.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하고 그녀는 말한다.

“우리는 성전에 가서 인봉할 것을 주님과 감독님 앞에 목표로 정해 놓았습니다.”하고 그녀의 남편은 말한다. “교회에 다시 돌아와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우리는 그룹으로 감” 참조)

★ ★ ★ ★ ★

## 우리는 그룹으로 감

**라** 파엘 루나는 교회 생활 13년 가운데 11년 동안 감독으로 역임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와드 평의회 모임에서 우리는 그 주에 활동이 저조한 어느 회원을 방문할 것인가를 토론합니다.” 가족이 결정되면 감독단은 그 가족의 연령에 따라 장로 정원회, 초등학교, 상호부조회, 청년, 청녀, 주일학교 회장단과 함께 그 가족을 방문한다. “우리는 그 가족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처음에는 그룹으로 찾아갑니다.”하고 그는 말한다. 가족 전체와 더불어 기도를 하고 간단히 말씀을 나눈 뒤에 지도자들은 각각 흩어져서 지명에 따라 해당되는 가족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회장은 어린이들에게 초등학교가 언제 열리며, 교사가 누구고, 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관해 이야기하며 그들을 초등학교에 나오도록 초대한다.

“그러한 방문이 있고 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도 대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지난 수년 간 상당히 많은 가족이 다시 활동 회원이 되게 했습니다.”하고 루나 감독은 말한다.

★ ★ ★

멕시코시티 “우리가 들어갔을 때 태버네클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로베르토 윌슨과 그의 아내 마리아 테레사는 여러 달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총관리 직원, 지역 대표, 그리고 스테이크 부장단의 일원(그들의 가정 복음 교사였음)이 그들을 방문하고자 한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두려움이나 죄책감으로 가득차 있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분들이 방문하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하고 마리아는 말한다.

그녀는 그분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태버네클 합창단의 테이프를 들어 놓았던가? “아니에요. 저는 늘 합창 테이프를 들어 놓지요. 음악은 나를 편하게 해주거든요.”

기도가 끝난 뒤 지도자들은 로베르토와 그의 직장인 은행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들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마리아는 지나간 몇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했다. 지도자들은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고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권했다. 로베르토는 이렇게 말한다. “그분들은 내가 발전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신권을 받고 아내와 자녀와 함께 성전에 가도록 권고했습니다.”

윌슨 가족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그분들이 우리를 방문한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분명한 의도는 우리가 빛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물고기를 그물에 모으듯이 모으려는 것이었습니다.”하고 로베르토가 말한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한다. “남편은 제게 우리 가정은 그러한 방문자를 모실 수 있는 특별한 가정이었다고 했어요. 교회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에 주어졌던 부름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아무런 직책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음날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들은 대회에 참석했으며 계속해서 교회에 참석했다. 로베르토는 회원이 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신권을 받지 않았었다. 그러한 방문이 있고 한 달이 지난 뒤에 그는 아론 신권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반 후에 그는 장로에 성임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성전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가 선교사로 나갈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선교사, 가정 복음 교사 및 친구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그 특별한 방문을 생각해 본다. “그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우리는 사랑을 전하러 왔습니다.” 참조)

프에블라, 멕시코: “토리스 형제는 언제나 나의 형제였습니다.”

1964년에 침례를 받은 벨리노 카멜라는 아내와 여섯 자녀는 활동적이었지만 자신은 여러 해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었다. 그런데 20년 이상 친구로 지내온 아벨토리스가 그의 가정 복음 교사로 지명되었다.

처음 방문했을 때 토리스 형제와 그의 아들 에녹은 테이블 위에 맥주 깡통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그들은 한 달에 한번이 아니라 매주 방문하였다.

토리스 형제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교회에서 뵙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모습이 안보이니까 몹시 섭섭합니다.”

그는 “가족은 나갈 겁니다. 그러나 전 안 나갈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곤 했다.

“하지만 형제님, 형제님은 가장입니다.”

토리스 형제와 그의 아들은 매주 방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카멜라 형제를 다시 교회에 오도록 초대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네, 내일은 교회에 나가지요.” 그리고 그는 교회에 나왔다.

“그는 계속 교회에 나오니다.”하고 토리스 형제는 말한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덧붙인다. “그와 그의 가족은 항상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도착합니다.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성찬의 상징물을 취하기 위해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적입니다.”하고 카멜라 형제는 대답한다.

그토록 많은 시간과 방문이 있고 나서 그는 왜 결국 교회로 다시 돌아갈 결심을 했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인 토리스 형제가 매주 방문하여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누군가 나를 때밀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의 소망은 아내와 자녀와 함께 가족 인봉을 받는 것입니다. 토리스 형제의 말처럼 나는 아이들이 아직 집에 있을 때 성전에 가야 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큰 아들과 딸은 선교사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정 복음 교사를 바라본다. “토리스 형제는 늘 나의 형제였습니다.”(“약간의 격려”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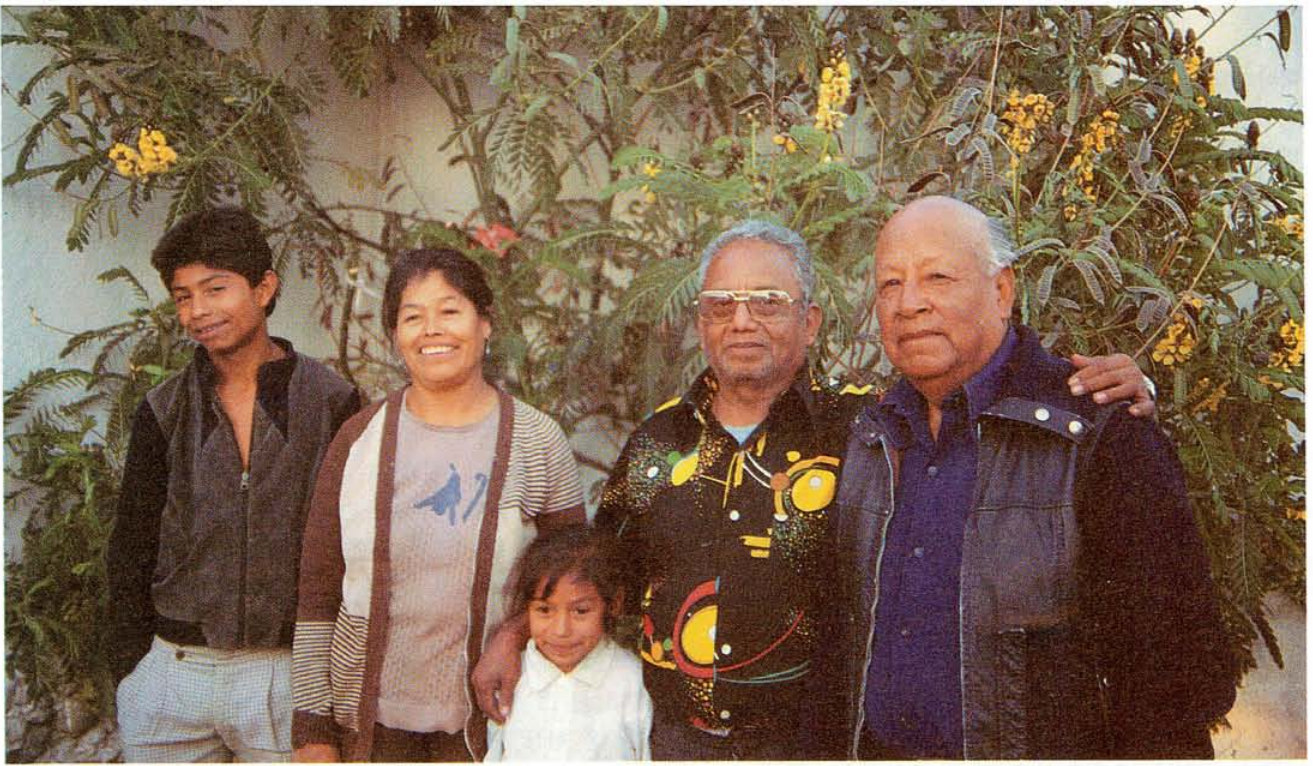
## 우리는 사랑을 전하러 왔습니다

**윌**슨 가족을 방문했던 것과 비슷한 일들이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스테이크 대회가 있기 전에 스테이크 부장단과 감독들은 방문 역원과 만난다. 기도와 금식을 한 뒤에 감독들은 지도자의 방문을 받아들일 만하다고 느끼는, 활동이 저조한 가족의 명단을 제출한다. 지도자들은 들쭉 쪽을 지어 그들을 방문한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멕시코시티의 지역 대표인 이사이아스 로자노는 이렇게 말한다. “가정방문’을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내일은 스테이크 대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원할 뿐만 아니라 메기세백 신권을 받고





멕시코 푸에블라에 살고 있는 아벨 토리스(오른쪽 끝)와 벨리노와 사라 카멜라, 그리고 그들의 두 자녀 세자르와 사라.

가족을 성전에 데리고 갈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대개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드리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방문을 좋아합니다."

스테이크 부장단과 감독단들도 이러한 방법을 따랐으며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다. "감독들은 우리에게 가장 준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가족의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넷사왈코요틀 스테이크의 에바리스토 데 레온 부장은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워드 및 스테이크 지도자와 함께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가족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비공식적이고 우정에 찬 방문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산호세 코스타리카 스테이크의 밀튼 에프 마린 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3주 전에 저는 아내와 함께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오랫동안 여러분과 친분을 가져 왔습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특별한 분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 다음날 교회에 나오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후로 그들은 매주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 격려의 말

**가**정 복음 교사와 지도자들은 카멜라 형제와 같이 약간의 격려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 때때로 그것은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루 저녁 사이에도 성취될 수 있다.

마린 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한 형제에게 접견을 하러 나의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 우리는 잠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에게 왜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구실은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기가 어렵다, 말씀이 지루하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일조는 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지지하는가? '그렇습니다.'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서 다른 사람이 돌아오도록 하는 데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그는 합당했으므로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우리는 다음날 스테이크 대회에서 그의 이름을 발표하고 그를 장로에 성임했습니다. 그는 그후로 계속 충실했습니다."

접견을 할 때 신권 지도자가 묻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멜기세덱 신권을 받는 데 장애가 됩니까?, 또는 성전 추천을 받는 데 장애가 됩니까?"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다음과 같은 목표가 주어진다. "한 달, 두 달, 또는 여섯



달 동안에 준비할 수 있습니까?”

마린 부장과 그의 보좌들은 다음 스테이크 대회가 있기 전까지 6개월 동안 스테이크 내에 있는 활동이 저조한 장로와 수련 장로를 모두 접견하고 있다. 감독단과 장로 정원회 회장단은 회원들을 이 접견에 초대한다. “우리 스테이크에서는 지난해에 150명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족 모두가 활동화된 가족들도 있습니다.”하고 그는 말한다.

**에레디아, 코스타리카:** 그는 주님께 간구했다.

카를로스 바레는 친구의 결혼식장을 떠날 때 술에 취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술취한 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를 내서 척추에 세 군데의 부상을 입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 생애는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하고 나는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의 간구가 응답되었음을 알고 있다.

카를로스는 열 일곱 살에 침례를 받았지만 그의 말일성도 친구들과는 달리 선교 사업을 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선교사로 나가 있는 동안 그는 나쁜 습관을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저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활동적이었으며 장로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양심에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그때부터 나의 생애는 비참해졌습니다.”

그는 비회원인 아이다와 결혼을 했다. “생활 가운데서 무엇인가 늘 불만스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하고 그는 말한다. 게다가 그는 실직까지 했다. 문제가 가중되었다. “나는 더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약을 복용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다는 이렇게 말한다.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더욱 단합하기보다는 정서적으로 멀어졌습니다.”

선교사들과 교회 회원들이 자주 그를 찾아가서 격려했으며 그는 교회에 나온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하고 그는 말한다.

결국 그는 경찰서 방송 요원이라는 좋은 일자리를 얻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평안을 얻지 못했다. “나는 아내와 딸들이 다니는 교회에 참석했지만 내가 찾으려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있는 성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이다는 선교사의 토론을 들었지만 침례를 받으려 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1986년 11월에 카를로스가 등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며 불구가 되지는 않았다. “나는 비록 술은 취해 있었지만 다시 걸을 수 있는 것을 알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나는 나의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나를 도와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다.

2월에 두 명의 자매 선교사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명단에 기록된 활동이 저조한 이 가족을 만나러 왔다. “그들은 적절한 시기에 왔습니다. 그들이 그때 이전이나 이후에 왔다면 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며 다시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당당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습니다.”하고 카를로스는 말한다.

자매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방문했으며 그들은 카를로스와의 아이다에게 토론을 다시 가르쳤다. 아이다는 간증을 얻었으며 3월에, 그러니까 카를로스가 사고를 당한 지 4개월 후에 침례를 받았다. 카를로스는 담배를 끊었으며 아내 아이다 그리고 두 딸과 함께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현재 그는 장로 정원회에서 교사를 맡고 있으며 아이다는 초등학교 교사이다.

아이다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완전한 변화였어요. 가족이 모두 이렇게 교회에 있게 된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교회에 있지 않게 되었다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그들은 우연히 간 것이 아니었다.”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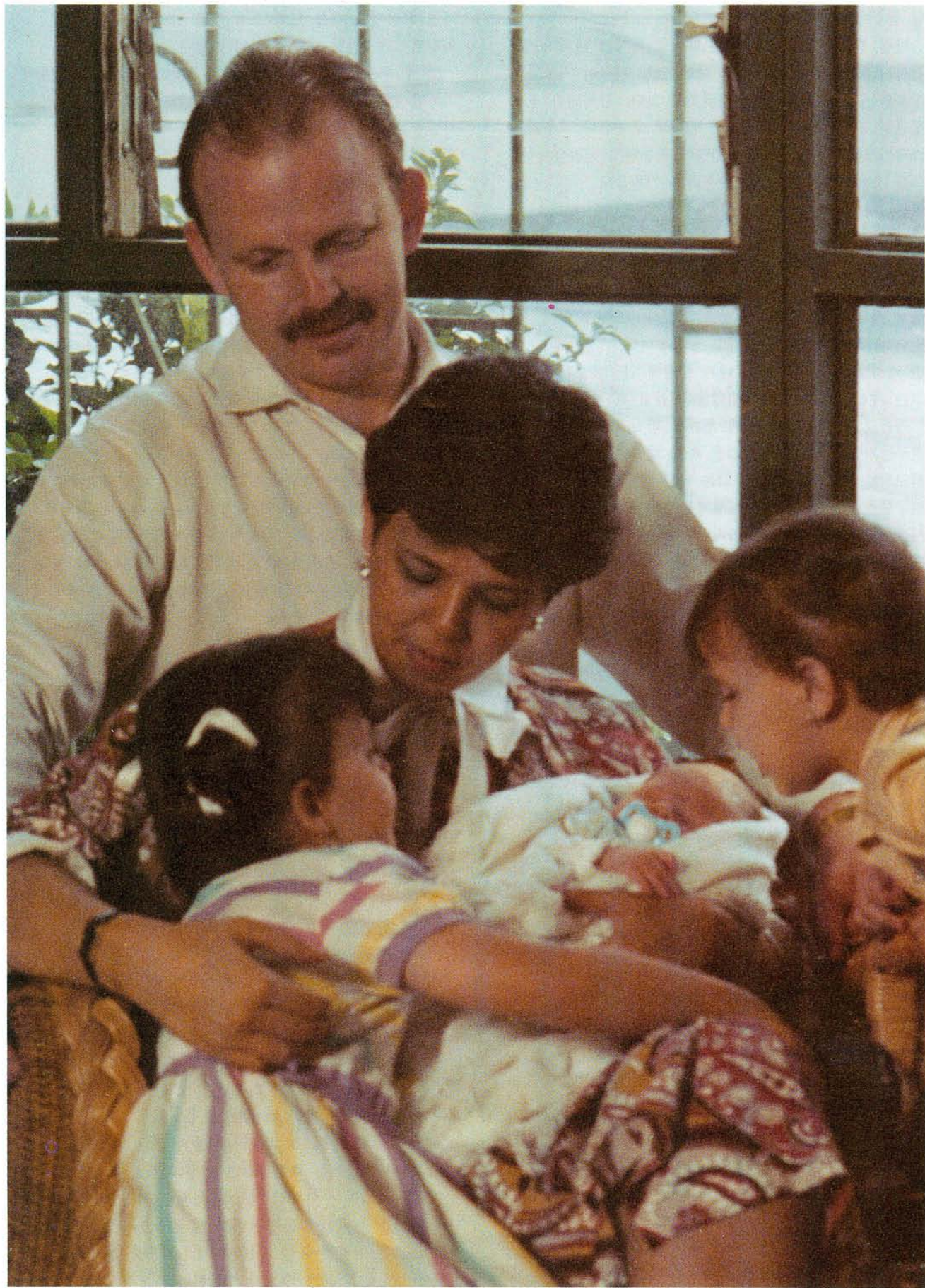
## 그들은 우연히 간 것이 아니었다

**자** 매들이 바레라의 가족을 방문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코스타리카에 있는 선교사들은 활동 회원이든 비활동 회원이든 관계없이 모든 회원을 방문하여 일련의 회원 선교사 공과를 가르치고 비회원 친구들을 소개하도록 부탁하라는 지명을 받았다.

“이것이 회원들로 하여금 선교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데 성공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선교 부장의 임기를 마친 댈빈 아놀드는 이렇게 말한다. “선교사들은 회원들로부터 소개를 받기 때문에 가가호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도 활동적인 회원만큼 소개를 많이 해 줍니다. 때로는 더 많이 해 주기도 합니다.”

가장 큰 혜택 중의 한 가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사람들을 재활동시키는 일과 더불어 그들로부터 구도자를 소개받는 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와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활동하게 된 연유를 묻는다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회원 선교사 토론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산호세, 코스타리카: “나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니엘 프랭크슨은 열 네 살이었을 때 어머니와 함께 고국인 캐나다에서 선교사 토론을 들었다. 그가 열 일곱 살이 되었을 때 코스타리카에 살고 있는 그의 누이가 산호세에 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곳에서 학교에 다니도록 초청했다. 그곳에 도착한 첫날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선교사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다시 토론을 들었으며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신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두려움을 느꼈다. 게다가 코스타리카에서 알게 되어 후에 결혼한 애인은 그녀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깊이 몰두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후 5년 동안 그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은 한 친구를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쌓여 가고 있던 느낌이 분출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교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누군가를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그는 친구가 누군가를 그에게 보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부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생활에 질서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무엇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현재 신권이 필요합니다! 친구를 보았을 때 나는 그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그의 새로운 가정 복음 교사가 찾아왔다. “그들은 매주 일요일에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 시간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누군가가 그곳에 있어서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론 신권을 받고 그의 아내 아나를 가르치도록 선교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는 선교사들을 어렵게 했습니다.”하고 말하면서 미소를 짓는다. “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해답을 찾기 위해 책을 뒤적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선교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며 결국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임을 믿어요’”

다니엘은 그의 아내에게 침례를 주었다. 1년 후에 그들은 두 딸과 함께 과테말라시티 성전에 가서 인봉을 받았다. 코스타리카에 돌아와서 어느 날 저녁 함께 물론경을 공부하고 있는 데 아나의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나타났다. 그는 세 번이나 강력하게 말했다. “아나야, 나는 복음이 필요해.”

“그것은 참으로 아내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한 대리 사업을 위해 곧 성전으로 되돌아 갔습니다.”하고 다니엘은 말한다.

다니엘 프랭크슨은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강한 열망으로 인해 다시 활동 회원이 되었으며 아내도 개종시켰다.

아나는 초등학교 교사이며 다니엘은 고등 평의원이다. 그는 선교 사업에 관한 말씀을 할 때면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우리는 매주 비회원을 가정에 초대하여 그들을 선교사들에게 소개하거나 그들과 함께 토론을 합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 침례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지 않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기록을 남김” 참조)



## 기록을 남김

다니엘 프랭크슨은 경험을 통해 새로 침례받은 회원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 목적은 새로운 개종자가 계속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멕시코 및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스테이크와 선교부의 지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난 뒤 3개월 동안 선교사들은 “녹색 카드”를 작성함으로써 그들의 진행 과정을 기록해 나간다. 그 카드에는 새로운 개종자가 새로운 회원을 위한 가정 복음 교육을 받은 시기, 교회에서 기도 또는 말씀을 한 것, 교회 부름을 받아들인 것 등을 기록한다.

또한 남자의 경우 신권을 받은 때와 가정 복음 교사로 부름받은 날짜를 기록한다.

녹색 카드 이외에 워드 선교 책임자는 기록부를 가지고 있다. 그는 새로운 개종자가 교회에서 완전히 활동 회원이 되도록 돕기 위해 선교사와 워드 지도자들로부터 새로운 개종자에 대한 온갖 자료를 다 수집한다.

어떤 지도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사람들을 활동 회원으로 머물게 하는데 크게 성공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카드를 기록하고 워드 선교 책임자는 그들의 책임을 다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 회원으로 남아 있게 되지요.”



“나는 목자입니다.”

멕시코 및 중앙 아메리카에서의 재활동 촉진에 대한 노력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이다. 즉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이다. 호르케 우블리 지부장은 다른 지도자들과 같은 느낌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사무실에 앉아 양떼들이 방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찾아 나가야지요.”







#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예언자의 생애를 살펴봄

**4 월**은 연차 대회가 열리는 달이다. 이들 동안 네 번의 일반 총회와 한 번의 신권 모임에서 교회 회원들은 총관리 역원으로부터 일상 생활을 위한 영감받은 지침을 받게 된다. 연차 대회를 감리하는 분은 주님의 예언자인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이다. 벤슨 대관장께서 대관장으로 취임하신 지 금년으로 5년째이다. 그는 1985년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의 별세로 그 해에 성임되고 성별되었다.

올해 90세이신 벤슨 대관장님은 신체적인 활동이 자유스럽지는 않지만 여전히 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다. 그는 매일 그의 보좌 및 다른 총관리 역원들과 만나며 총관리 역원들과 갖는 정규 모임을 감리하고 매주 벤슨 자매와 함께 성전에 참석한다.

그러나 일은 벤슨 대관장의 생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가 아이다호주에 있는 가족의 농장 일을 돕기 시작한 것은 네 살 때였다. 열 네 살에, 그의 부친이 3년 동안 선교 사업을 위해 부름받았을 때 어린 에스라는 커다란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 이후로 그의 생애는 가족과 교회, 사회 및 국가를 위한 일과 봉사의 연속이었다.

여기에 끊임없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삶의 모범이 되시는 벤슨 대관장의 모습이 담겨 있다.\*



벤슨 대관장 부부는 거의 60년 전인 1926년 9월에 결혼했다.



1943년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을 당시의 벤슨 대관장 부부와 자녀들 보니(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 있다.), 마크, 바바라, 베벌리, 그리고 리도(뒤에 서 있다.)





위 : 1943년 십이사도  
정원회에 새로 부름받은  
당시의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와 벤슨 장로 모습  
아래 : 1946년 3월에 노르웨이  
스타버거에서 찍은 사진.  
왼쪽에 벤슨 대관장이  
보인다. 같이 찍은 사람들은  
노르웨이 선교부장 에이  
리차드 피터슨(가운데)과  
노르웨이 통역사 얼링  
매그네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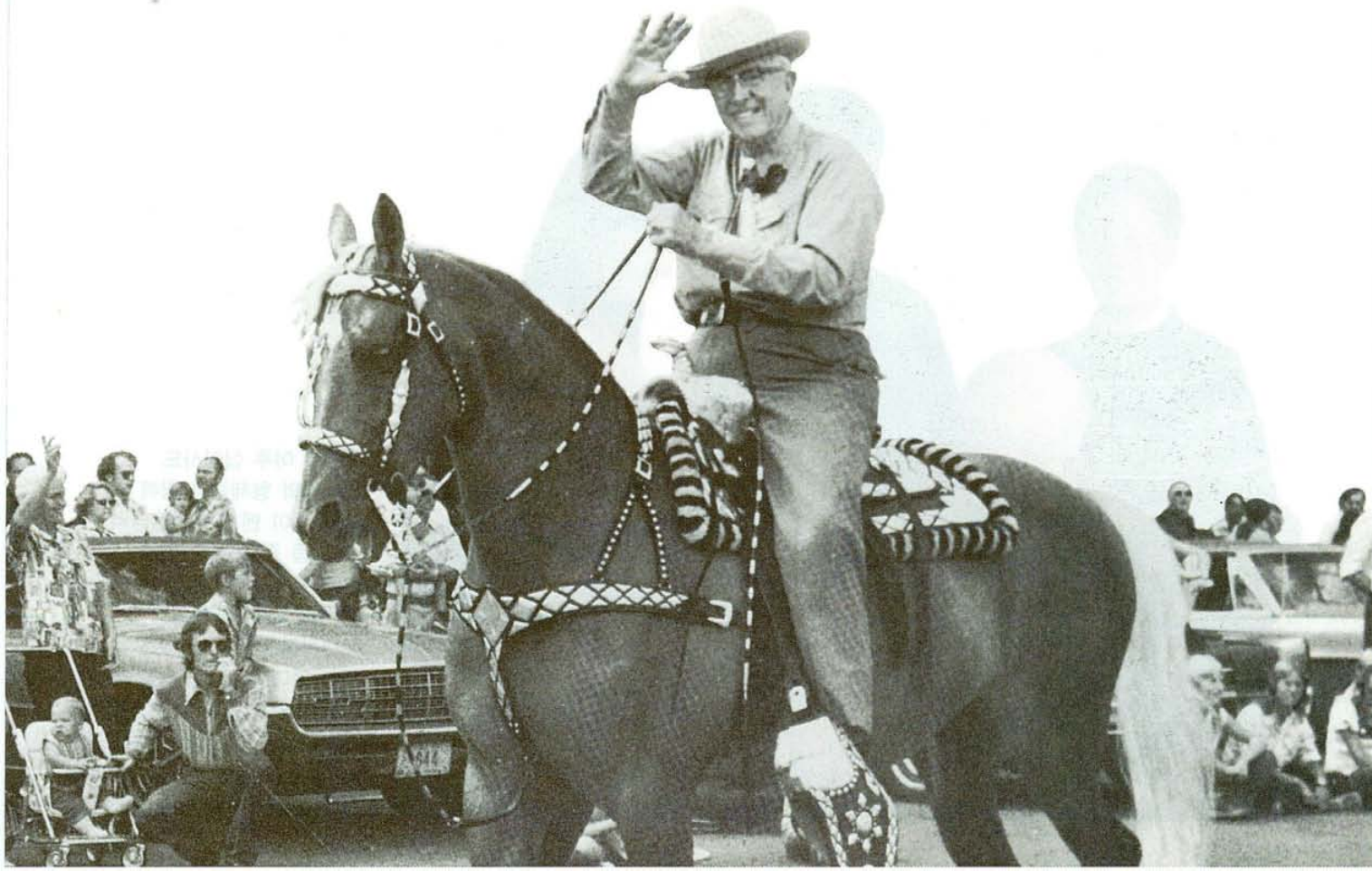




1952년 벤슨 장로는 드와이트 디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각료에 임명됨으로써 각광을 받게 되었다. (위 가운데)벤슨 장로는 특히 대중 매체를 통해서나(위)가뭄에 피해를 입은 농촌을 방문함(왼쪽)으로써 농림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



벤슨 장로가 유럽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던 1960년대 중엽에 찍은 사진. 이들 부부와 막내 딸 베스는 이때가 참으로 즐거웠다고 말한다.  
아래 : 1976년 7월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날"에 벤슨 대관장께서 아이다호 피터슨에서 그를 칭송하여 마련한 퍼레이드에서 행렬을 인도하고 계시다.







벤슨 가족이 백악관으로  
아이젠하워(가운데)  
대통령을 방문하고 있다.



1960년 연차 대회에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오른쪽)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벤슨 장로



1943년 이후 십이사도  
정원회의 형제들과 함께  
하는 것이 벤슨 대관장님의  
생활 중 주요한 부분이  
되었다. 현재는 그의 두  
보좌인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과 토마스 에스  
문슨 부대관장의 도움을  
받으며 일하신다. 벤슨  
대관장님은 초등학교 연령의  
어린이들이 사무실로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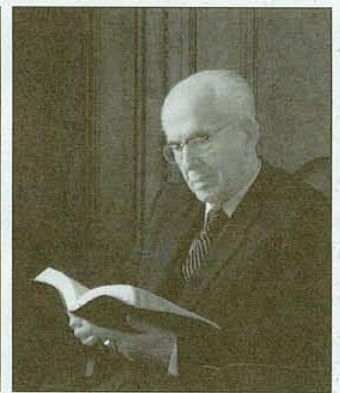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과 당시 미국의  
부통령으로서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한  
조지 부쉬.



1989년에 벤슨 대관장님은  
“평생을 바쳐 국가와 지역사회,  
교회 및 가족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인해 국내 최고 영예  
표창인 대통령 시민 훈장을  
받으셨다.



벤슨 대관장님은  
성도들에게 몰몬경을  
연구하고 이를 실행하며  
몰몬경에 들어 있는  
메시지로 “세상을  
가득차게”하라는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다.

아래 : 1988년 10월 연차 대회  
일반 총회에서 몰몬 청소년  
합창단에게 그들이  
자랑스럽다는 표시를 해  
보이시는 벤슨 대관장님.







“최후의 만찬”, 칼 하인리히 블로크 그림

원본 덴마크 프레드릭스보그 성당 소장. 프레드릭스보그 박물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함.

지정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벤**슨 대관장께서 대관장으로 취임하신 지 금년으로  
5년째이다. 올해 90세이신 벤슨 대관장님은 여전히  
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며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삶의 모범이 되신다.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42페이지 참조)